

• 2013 청소년상담연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책임 연구자 : 양 미 진

서 미

공동 연구자 : 주 지 선

김 혜 영

성 버 리

전 환 희

청소년상담연구 17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개발

인 쇄 : 2013년 12월

발 행 : 2013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94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사) 한국장애인 e-work 협회

비매품

ISBN 978-89-8234-520-3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개발 /
[양미진, 서미, 주지선, 성버리, 김혜영, 전환희 공저].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75)

참고문헌과 권말부록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됨
ISBN 978-89-8234-520-3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94330

청소년 문제[靑少年問題]

334.3-KDC5
362.7-DDC21

CIP2013027462

간행사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인성교육과 사회의 역할 강조 등 학교와 가족 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상담 사업은 학교 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 및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확대되어 2012년 4,600여개의 학교에서 60,000여명 또래상담자와 6,200여명 또래상담 지도자가 활동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1994년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필두로, 단계별 기초훈련 프로그램, 학교운영모형 및 운영지침 개발 등 효율적인 또래상담 운영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보급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프로그램이 보다 학교폭력예방에 초점화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문헌연구와 델파이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이 역할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또래상담자와 또래상담 지도자 대상 심층면접, 참여자 관점 평가, 전문가 감수를 통해 기획과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나오기까지 연구의 기획과 진행 그리고 결과의 도출까지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상담연구지원팀의 이영선 박사, 김은영 선임상담원, 최영희 상담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진인 양미진 박사, 서미 박사, 주지선 선임상담원, 김혜영 상담원, 성벼리 상담원, 전환희 상담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또래상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초 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면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전국 중·고등학교에 확대 보급되어 2012년 4,600여개의 학교에서 60,000여명의 또래상담자가 양성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래상담자는, 아이들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경청과 공감을 학교폭력 피해(가능)친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응을 도우며 공감 및 배려의 학교분위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최혜숙, 200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이렇듯 학교폭력 예방에서의 또래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둔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또래상담자가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법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기획단계, 구성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를 통해 개발되었다. 먼저 기획단계에서는 학교폭력에서의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또래상담 전문지도자) 23명에게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발전적 운영 및 심화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추출하였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그 역할 수행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 문헌 연구에 따라,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크게 피해자를 돕는 또래상담자와 공감배려 문화를 형성하는 또래상담자로 구분하였다. 이때, 피해자를 돕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또래해결자로 세분화되며, 공감배려 문화를 형성

하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학교에서의 공감배려문화 촉진자와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배려문화 촉진자로 구분하였다.

둘째 명료화된 또래상담자의 역할 각 영역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육과 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때 교육 영역은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 함양을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활동 영역은 또래상담자들의 실제 활동 지침과 안내로 구성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역할 역량강화를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구성원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존에 또래상담 기초프로그램을 수료한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교육회기 6회기와 활동회기 6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또래상담자 10-15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참여자 관점 평가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시범 운영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주 활용자인 또래상담 지도자 69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참가자 관점 평가와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처음 개발된 심화프로그램은 1차 시범 운영 전에 전문가 검수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으며, 1차 시범 운영 후 회기별 평가를 근거로 다시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은 2차 시범운영에서 실시되었다. 1차와 2차 시범운영 후 현장적용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또래상담 지도자 10명과 또래상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참여자 관찰 평가 결과, 효과성, 참여성, 충실성 및 편의성 모든 영역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참여자들이 개발된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에서도 12회기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참여자들이 구성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공감배려 문화 촉진자로 구분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과 각 영역마다 교육과 활동 회기로 구성한 것이 현장 요구를 잘 반영했으며, 그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 프로그램은 학업폭력 예방에 있어 또래상담자

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의 델파이 의견을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모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또래상담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또래상담 전달체계 구성원 모두(또래상담자, 또래상담 지도자, 또래상담 전문지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초프로그램 이후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충족되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시사점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과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학교폭력	4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0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19
III. 연구방법	32
1. 프로그램의 개발	32
2. 델파이 조사결과	38
3. 구성 단계	60
4. 시범운영 평가 및 결과	69
IV. 요약 및 논의	98
1. 연구의 요약	98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01
참고문헌	104
부 록1	111
부 록2	131



표 |

〈표 1〉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비교표	17
〈표 2〉 연구 참여자의 구성	39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9
〈표 4〉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41
〈표 5〉 1차 델파이 조사결과	43
〈표 6〉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관련 2차 델파이 조사결과	45
〈표 7〉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관련 2차 델파이 조사결과	48
〈표 8〉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관련 필요정도 결과	50
〈표 9〉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52
〈표 10〉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관련 필요정도 결과	56
〈표 11〉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57
〈표 12〉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구성 모형 - 또래상담자 역할	61
〈표 13〉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구성 모형 - 심화프로그램 구성요인	63
〈표 14〉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세부 내용	66
〈표 15〉 참여자 관점평가 하위요인	71
〈표 16〉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73
〈표 17〉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도	74
〈표 18〉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전문가 감수 의견	77
〈표 19〉 심층면접 참여자의 구성	79
〈표 20〉 심층면접 질문 내용	80
〈표 21〉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수정사항	95
〈표 22〉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세부 내용	96



그림 I

〈그림 1〉 학교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또래상담의 효과	25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모형(김창대 외, 2011)	33
〈그림 3〉 연구 일정	37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과 상해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교육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하여 지역사회의 연계강화를 통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대책에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과 가족관계개선사업,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사업 등을 확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함께 가족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또래상담은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부처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처 간 연계사업 시행 1년인 2012년에 4,600여개교의 학교에서, 60,000여명 또래상담자와 6,200여명 또래상담지도자가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청소년 문제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1994년부터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래상담은 일정기간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같은 학교와 학급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또한 다양한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친구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00년에 단계별 기초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또래상담 활동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되어 왔다. 본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로서의 상담활동을 위한 기초 훈련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좋은 친구 되기’, ‘대화하는 친구 되기’, ‘도움 주는 친구 되기’를 주제로 집단토의와 역할연습, 모델링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상담기술이나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총 12~15시간 과정의 기초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해당 학급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또래상담자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지도자의 슈퍼비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또래상담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치활동으로서 또래상담은 여타의 활동과 달리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활동 지침, 지도자의 역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보다 초점화 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및 동아리별로 또래상담자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래상담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또래상담자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강조되면서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화된 상담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과 시의성에 맞추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의 또래상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과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촉진시키는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또래상담 지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의 정의 및 현황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정의된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확산되면서 더욱 다양한 양상의 폭력 형태와 피해범위를 포함하여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보는 관점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재정의 및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학교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3년 3월 경산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새롭고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 학교폭력의 현황

2012년 교육부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또한 24.5%가 “학교 내 일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5,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12.0%, 가해율은 12.6%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생각은 44.7%로 조사되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5명이 피해 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후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한 학생은 49.3%, 가해학생에게 복수 충동을 느낀 학생은 전체의 70.7%로 학교폭력 피해 후 상당수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처음 학교폭력 피해 경험시기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30.5%, 고학년(4~6학년)은 47.8%로 총 78.3%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이 장기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학생이 2011년 1.8%에서 2012년 4.8%로 나타나 사이버공간 상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은밀한 형태의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한 학생은 전체의 44.5%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목격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뜻하며 나아가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학생은 33.8%로 나타났으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 요청 시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41.8%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9.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혀 모른다’ 또는 ‘모른다’로 응답한 학생은 34.9%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심리적 고통의 심각화, 발생의 저연령화 및 장기

화, 사이버 폭력의 증가, 학교폭력 방관 실태의 심각성은 피해 청소년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는 학교폭력은 눈에 보이는 폭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신고에 따른 후속적 조치보다는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위한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나. 학교폭력의 요인

청소년 폭력예방을 연구해 온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폭력을 예측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예측요인들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제공한다면, 청소년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Hawkins et al., 1998; Williams et al., 2007). 이러한 예측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의 위험요인

Coie와 동료들(1993)의 정의에 따르면 위험요인은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 문제의 악화, 그리고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내적인 심리적 요인(홍봉선, 남미애, 2005)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요인(곽형식, 1998), 양육태도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을 포함한 가정 요인(원명희, 2002), 또래 관계 요인, 그리고 학교 내의 폭력에 허용적인 분위기와 같은 환경적 요인(박효정 외, 2007; 표갑수, 1998) 등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내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 관계와 학교 및 지역사회라는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 학교 및 친구요인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학생 17만명 중 47%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장소로 학교 안을 지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내 장소는 교실(25.3%), 화장실과 복도(9.1%), 운동장(5.1%), 음악실과 미술실, 창고 등(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학교 및 친구요인과 관련하여 첫째, 친구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본 학생이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사회적 모방을 들 수 있다. 즉, 힘센 아이에게 약한 아이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고 동경하게 되어 자신도 그러한 행동에 동조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친구나 자신의 폭력행동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고, 별다른 벌도 받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어른들에게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학생이 맞서 대응하지 않고 다른 방관 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대신해 공격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주어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이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전인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거나 암묵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책임성의 분산과 인지적 변화이다. 학급의 일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다수에게 한명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피해 학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폭력 행동을 묵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대해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며,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10).

이렇듯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요인들은 악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무관심 및 허용적 태도를 보이게 되

고, 처벌 및 제재 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을 암묵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허용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며 죄책감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에 폭력행동은 더욱 강화되며,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동조하는 집단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나) 지역사회요인

학교의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빼놓을 수 없다.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전통사회의 사회규범이나 도덕윤리의 붕괴 내지 약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해체와 사회전반에 걸친 유해한 비교육적인 지역 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표갑수, 1998).

특히 학교 근처 또는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업소들은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이 성인들에 의해서 사회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성을 지니면서 계속하여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집단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모순이 존재할 경우 학생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착시킬 표준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러한 경우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왜곡된 인간관계의 모델을 형성시키면서 성장하게 된다. 때문에 분노와 적개심 등의 정서를 고양시키고 이러한 정서는 계속되는 폭력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2) 학교폭력의 보호요인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이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는 다중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Rutter, 1995).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보호요인이다. 즉 보호요인이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Garmez, 1985; Rutter, 1979)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호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밝혀졌다. 첫째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능이 높고, 긍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둘째, 친화력이 있는 인간관계로서 가족, 친구, 사회기관 등의 누구와도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뢰로운 관계를 진정으로 맺는 경우이며, 셋째,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Pollard, Hawkins, & Arthur, 1999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청소년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으며(남영옥, 한상철, 2007; Voydanoff & Donnelly, 1999), 교사지지 또한 폭력피해의 중요한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이 인지한 교사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폭력 피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종국, 김충기, 2002). 또한 학교폭력을 완화해주는 보호요인 중 또래와 학교 분위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2012)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 학교의 보호요인은 아동기의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 폭력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순혜(2012)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친구의 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내에서 또래의 지지를 증진시키고 학급운영, 학교 분위기를 친사회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가. 국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및 처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십 년 동안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연구해 국가들로부터 태동하였다(Sweare & Espelage, 2004). 학교폭력 문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의 Olweus(1978)의 Anti-Bullying Information Campaign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의 원형이었고, 현재까지도 새로이 개발되는 학교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Kenneth & Duane, 2008). Olweus의 Bullying Prevention Program(OBPP)은 학교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폭력행동을 강력히 감시하고 제재한다.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이 때 밝혀진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 부모, 학생들이 모두 모여 협력하여 논의한다. 학급수준에서 학생들이 폭력에 관한 규칙을 자치적으로 정하고 지키며 협력학습, 긍정적인 학급활동 등을 장려하며 피해를 당할 시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이러한 전 학교적인 개입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수준에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며, 학급의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94).

또한 Anti-Bullying Project는 영국의 가장 대표적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다(한소은, 2006). 이는 교과과정에 기반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드라마, 역할놀이, 글짓기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학교가 피해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며, 운동장이나 점심시간 감독하기 등을 통해 공격행동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강화한다. 정기적인 학생들의 모임인 Quality circles에서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급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토의하고 모색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방프로그램인 RCCP(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지만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비폭력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친다(문용린 외, 2009).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학급에서 교과과정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래의 중재, 학부모 교육 등도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경청, 자기주장, 정서경험, 협상,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효과성 연구에서 공격적 갈등해결, 공격행동 등의 성장 둔화의 효과를 보였다.

Second Step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은 유치원 이전부터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할극, 모델링, 교정적 피드백, 긍정적 강화를 핵심요소로 하여 충동을 통제하고 분노를 조절하며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Frey & Guzzo, 2000). 이 프로그램은 학급을 단위로 30개 정도의 레슨으로 진행되며 6주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평가에서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고 반사회적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Taub, 2001).

Positive Adolescence Choice Training(PACT)는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분노조절기술과 친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육이다(남상임, 2008). 또래가 출현하는 비디오를 통해 폭력의 위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역할 훈련, 사이코드라마 등에 참여하여 피드백을 받고 또래의 압력에 대처하는 법, 친사회적인 협상방식 등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성취(ACHIEVE)는 학교 전체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술 및 갈등해소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고 학업성취와 교육적 진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정현주 등, 2012). 또한 긍정적인 학교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학부모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시킬 것을 특히 강조한다. 이는 전략적 계획 수립이 우선적인데, 교사, 교직원, 학교소속 정신건강전문가, 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효과적인 행동관리와 긍정적인 기술지향적 학생 훈육을 위한 학교 전체 차원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나아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의 실천과 지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

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율과 체포율 감소, 학업성취의 증가가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로 보아, 국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토의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OBBP와 ACHIEVE와 같이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예방 및 개입이 긍정적인 학교분위기 즉, 친사회적 대인관계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다.

나.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운영기간과 진행형태의 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된 반면 내용면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의 교육과 함께 친밀감형성, 대인관계 기술과 자기표현, 분노조절, 타인이해, 갈등 해결 훈련 등 대인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우선 폭력의 개념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작은 힘으로 시작해봐!(2006)는 도입 1회기, 폭력개념이해 3회기, 입장별 이해 1회기, 대처행동 2회기, 정리 1회기로 구성되어 6회기 중 4회기가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내가 바로 지킴이(2004)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1회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개(10분), 학교폭력의 개념(30분), 상황별 학교폭력 대처방안(30분), 단기(10분)로 구성된 80분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1회적인 교육이다. 서울대 발달심리연구실에서 개발된 시우보우(2006)프로그램과 헬핑(2005)은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우보우 프로그램은 한 편당 10분정도가 소요되는 10편의 동영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발달수준에 맞게 구체적 사례별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헬핑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방관자와 중재자의 역할, 학교폭력 법률과 대처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의사소통기술, 친사회적 기술 등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2007)은 공감, 관점채택, 사회적 문제해결, 의사소통, 또래 중재 상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주로 수동적으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형식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16회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한 번 더 생각해봐’는 폭력에 대한 개념이해, 적절한 자기표현 기술, 분노조절 기술, 중재자 역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교육하도록 하는 즉, 인지적 접근과 함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교에서 학교 내 전문가가 부재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시도되고 있다(김상곤, 정연정, 2007).

이렇듯 현재까지의 국내의 프로그램들은 단발적인 인지적 교육,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어려웠으며, 인지 행동적 접근들 또한 그 운영인력과 비용의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앞서 살펴 본 보호요인인 학교의 긍정적인 분위기, 배려와 공감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 2차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골자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성교육 실천도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다. 문용린 등(2009)의 1차 계획 성과조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교원연수에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교사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으로 인한 학교폭력업무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한계를 보였다(정현주 등, 2012, 재인용). 따라서 일회적 혹은 전시적 형태의 예방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형태이면서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조연순 외(2001)의 연구결과 등에 따라 학교 전체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래상담은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토양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중학교 또래상담자에게 3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6개월간 또래상담을 진행하여 사전사후 비교한 연구 결과 2개 학급학생들의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이남희, 2005). 특히, 학급 분위기에서는 하위영역인 학급친구에 대한 태도와 학급 생활태도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또래상담자의 하급생 상담 결과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학교적응이 향상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최혜숙, 2006). 뿐만 아니라 또래 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자들도 자존감, 인간관계, 사회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최현주, 2003, 정인호, 2003).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

또래조정과 학생자치법정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또래상담과 함께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또래조정은 교육부에서,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래조정과 학생자치법정의 정의, 현황, 기대효과, 한계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또래조정

또래조정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 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또래들 간의 대화, 토론 등 합리적인 절차와 적극적인 갈등조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활동이다. 또래조정의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처벌주의 대책보다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학교폭력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개입하도록 한다. 이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래조정은 2009년 여주중학교에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균관대학교 갈등해결연구소와 연계하여 10개교의 중·고등학교에서 ‘또래중조 교육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2012년 교육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갈등해소센터, 평화를 여는 여성회 갈등센터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79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조정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였다.

또래조정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는 학생들이 또래 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체벌 및 폭력으로서의 확대 방지가 가능하고,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또래조정자들의 자부심과 자신감 향상, 자기반성 및 자기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이주형, 2011).

그러나 또래조정 활동의 한계점은 또래조정자가 갈등상황에 있는 친구들의 감정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 중립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교육을 받은 후 너무 빨리 조정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 가지게 됨으로써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또래조정은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래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한 교내외 홍보와 주담당교사의 배치, 전용공간 확보 등의 학교환경 조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운영모델 및 심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안정화를 위한 검증과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등 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역할을 맡아서 재판을 실시하고, 교칙 위반자에

게 교육적 처분을 실시하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이다(법무부, 2012).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목적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운영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2년에는 660개교에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수에 비례하여 1,000개교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지정학교에는 운영 매뉴얼 및 법북 지원, 전문 지도강사 파견 등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자치법정 운영워크숍을 약 20여회 개최하여 4,000명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치법정 운영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첫 번째, 학생 자치 법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비행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는 점, 두 번째, 학교 내 징계 결정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 세 번째,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로 재판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법 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준법정신도 향상될 것이라는 점, 네 번째,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치권을 확대시켜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학생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생자치법정의 한계점은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비행이 습관화되지 않은 초범들,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판단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만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안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들이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형량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판결 받는다는 것에 대한 대상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충격, 고통, 트라우마, 낙인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학생자치법정을 주관하는 청소년들은 아이들의 특성,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아주 세심하고 감성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경험이 적고 의사소통 기술이 미흡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관계에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또래친구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또래조정 및 학생자치법정과의 비교

많은 경우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을 혼동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사업은 유사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비교표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개념	상담훈련을 받은 학생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들과 좋은 친구관계를 맺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활동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 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하도록 돕는 활동	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역할을 맡아서 재판을 실시하고, 교칙 위반자에게 교육적 처분을 실시함
방법	개인적인 고민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속마음을 또래상담자와 상담하거나 상담전문가에게 연계	중립자인 또래조정자가 갈등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 양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	또래 청소년이 참여인단으로 배석, 사건의 발생과정과 당사자의 태도를 조사하여 해결방안 결정
참여인원	상담자 및 내담자 각 1명	조정자 1명, 의뢰자 2명	당사자와 5~9명

교육 내용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한 경청, 공감, 어기역차(적극적 경청 기술, 대화기술), 잡하돌셋(분노를 다스리고 표현하는 기술), 원무지계(효과적인 상담 기술) 기법 등의 의사소통 기술 및 갈등해결 기술 습득	갈등 해결의 이해, 갈등 조정의 절차 및 방법/기법, 대화 진행법 및 대화 진행 연습, 갈등 유형별 해결 기법, 문제해결 연습	학생자치법정의 이해, 소년 사건처리 절차 및 형사절차의 이해, 학생자치법적 실습
교육 시간	기본교육 12~15시간, 보수교육, 상담 사례지도, 캠프(1박 2일)	기본교육 24시간	기본교육 5~6시간
개입 시기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 후 개입 가능	학교폭력 발생 후 개입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여 별점이 일정 이상 누적되어 학생자치법정의 대상인 경우
활동 내용	학급 내 도움 필요한 친구 지지 및 상담, 학교폭력없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내 활동(학교폭력 심리극 공연, 애플데이 운영, 사랑의 우체통 활동 등), 지역 또래상담자 연합회 활동(사례모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또래간의 갈등 중재	재판을 통해 교칙 위반자에게 교육적 처분을 실시
장점	관계형성을 통해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음. 친밀감 형성, 비밀 유지 표준화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또래상담자 및 지도자 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상표 등록된 바 있음)	당사자 상호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자율성, 중립성, 비밀유지 가능	당사자가 실천 가능하도록 또래의 입장에서 실천적 의견 제시
단점	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또래상담을 위한 장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담장면에 대한 노출 발생	조정가 훈련에 수개월 소요, 조정회의를 위한 준비와 시간 필요, 갈등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	선발의 공정성 불확실,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비밀보호가 어려움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가. 또래상담의 정의 및 현황

1) 또래상담의 정의

Vanrenhorst(1984)에 따르면, 또래상담은 Vriend(1969)가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의 학생들과 또래들과의 상담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또래조력자(Peer helper), 또래대사(Peer ambassador), 또래 중재자(Peer mediator) 등의 30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관용과 김순화(1983) 및 이형득과 김정희(1983)에 의해서 동료상담이 소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전문상담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용어 중에서 또래상담자란 용어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또래상담자의 활동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감 및 적극적인 경청의 대화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채연희, 이현림, 2003). 그렇기 때문에 또래상담자는 충고보다는 공감과 존중, 조언이나 비판보다는 경청하는 역할을 중요시한다. 또한 또래상담자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과 자신에 대한 각성과 이해를 촉진시켜 자신이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구본용 등, 1994).

May와 Rademacher(1980)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또래학생이 다른 또래 학생의 학업, 인성, 행동 등을 조력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Lombardi와 Carek(1978)은 '연령 차이가 3세 이내인 또래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교 적응문제, 직업문제, 개인문제 등에 관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문희와 강진령(2002)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기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의 정의를 종합하면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또래들의 문제해결을 돕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또래상담의 현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1994년부터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또래상담사업은 처음에는 학급에서 동료를 돕기 위한 준전문가인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해를 더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에 부응하면서 학교 내의 조직, 지역 내의 조직, 전국적인 조직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부처연계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4,638개교의 또래상담지도자 6,233명, 또래상담자 60,681명이 교육을 받고 활동하였다.

나. 또래상담의 효과

1) 또래상담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총 11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시간에서 15시간 동안 분산(주 1회) 또는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Friendship(좋은 친구 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 되기), Leadership(도움주는 친구 되기)의 세 가지 기본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되기(Friendship)에서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서,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걸림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리기 등의 활동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화하는 친구되기(Counselorship)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서, 또래상담 대화의 자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공감연습하

기, 대화 잘 이끌어 나가기(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어기역차 연습하기), 잡하둘셋 기법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도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기와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서,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대화 종합 연습, 역할극꾸미기, 도움되는 활동찾기(어떤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도움줄 수 있는 활동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또래상담의 효과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 상담 활동이 또래상담자, 또래내담자,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또래상담자에게 미치는 효과

1990년대에 또래상담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자의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의 향상을 가져오고(최현주, 2003; 소원미, 2003; 박은정, 2007), 의사소통능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소원미, 2003; 강영미, 2004; 강주영, 임성택, 2010; 변상해, 김세봉, 2011),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채연희, 이현립, 2003; 최현주, 2003; 박민영, 2003; 류부열, 2007; 양가영, 2008). 또한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성이 향상되었고(정영실, 2005; 박보라, 2008), 친사회적 행동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류부열, 2007; 오유하, 2009), 자기표현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다(전선숙, 2010).

반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이후 또래상담자들의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박민영(2003)은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자아개념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백향하(2004)는 심층면담을 통해 또래상담자 자신의 성격 및 정서에서의 내면적인 변화와 타인

에 대한 이해와 수용 등의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혜경(2006)은 사이버상에서 또래상담 활동을 하도록 한 결과, 사이버 상담 위주로 활동했음에도 또래상담자들의 의사소통 점수에게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금희라(2001)는 사이버 또래상담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 또래상담 활동은 또래상담자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능감, 사회적 기술 향상 등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또래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래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

또래상담 효과와 관련하여, 최혜숙(2006)은 또래상담 활동을 제공받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교 적응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정임, 주은선(2006)은 따돌림 피해 청소년은 따돌림 척도에서의 변화 및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박선중(2003)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 상담, 요선도 학생의 미래관, 일탈행동, 생활 적응력, 진로의식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미혜, 김종훈(2008)은 배척아동의 또래관계가 향상되었고 또래관계 검사의 하위영역인 신뢰감과 존중감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 배척아동의 사후 배척 빈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사회적 지위 등수가 상승하거나 사회적 지위 유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으로 인해 또래내담자들의 자아개념 및 자아실현,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태도,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불안이나 정서적인 문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효과

이나미(2011)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또래상담자 활동은 학급의 또래 수용도를 향상시키고, 공감능력의 요소 중 인지적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채연희(2003)는 중학교의 또래상담자 활동이 학급의 환경 분위기, 상호 신뢰, 사기진작 및 의사소통 등의 학급응집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남희(2005)는 중학교의 또래상담자 활동이 학급의 교우관계를 개선하였으며, 학급 분위기의 하위영역인 학급 친구에 대한 태도, 학급 생활 태도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혜숙·이현림(2005)은 고등학교 또래상담자가 활동을 한 학급이 독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급이나 통제 학급에 비해 학급응집력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또래상담은 친구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나-중심(me-ism)의 개인적 문화’에서 ‘우리중심(we-ism)의 공동체 문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의 효과

2012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을 통해 또래상담이 학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또래상담자가 2명 이상 배치된 학급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144개교의 3,012명을 대상으로 학급구성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급 응집력에 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사전 3.48(SD=0.65)에서 사후 4.11(SD=0.67)로 증가하였고, t -값은 -38.92 로 나타나($p=.000$, $p<0.001$) 또래상담자의 활동 이전보다 이후에 학급구성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응집력은 5점 만점에 사전 3.21(SD=0.67)에서 사후 3.94(SD=0.78)로 증가하였고, t -값은 -42.04 로 나타나($p=.000$, $p<0.001$) 또래상담자의 활동 이전보다 이후에 학급구성원들의 학급 응집력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또래상담자 활동 학급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학교 내 따돌림 감소 및 교우관계 향상을 통해 학급응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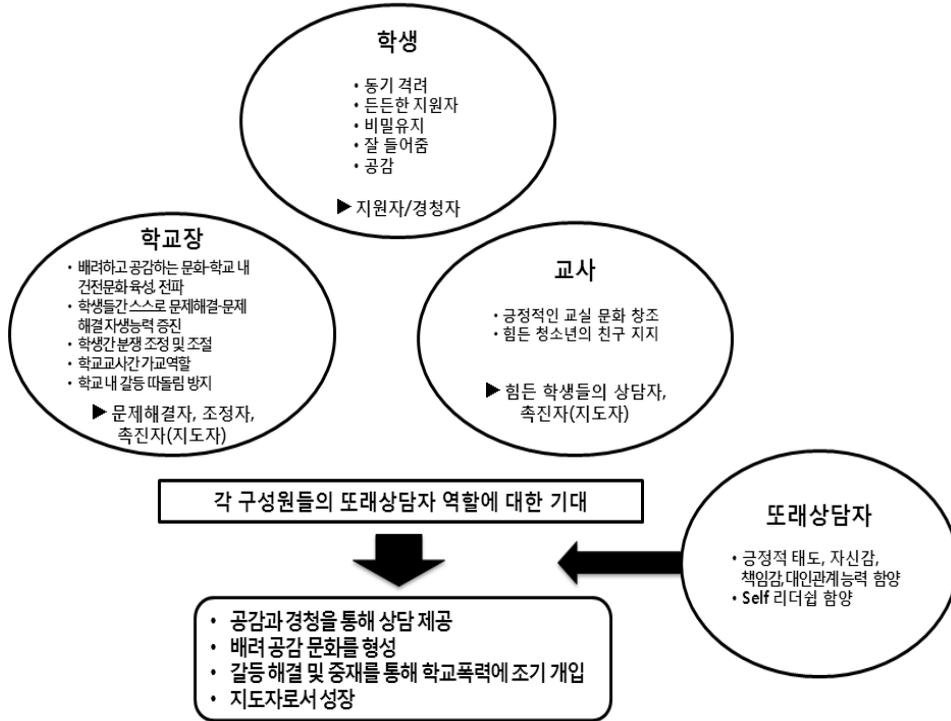
또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또래상담자 10명, 또래내담자 10명, 또래상담지도교사 8명을 대상으로 각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또래상담 운영학교의 학교장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또래상담을 받기 전과 후로 또래상담에 대한 또래내담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또래상담자 또한 상담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책임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입장에서는 전문상담사로만 역부족이었던 학교상담 장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학교장들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고 공감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또래상담자가 진정한 우정과 리더십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공감적 지지와 배려행동을 통해 진정한 카운슬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 또래상담을 통해 또래간의 갈등이나 집단따돌림 현상이 줄어들고, 학생들간에 공감하고 원활히 소통하는 장이 이루어졌으며, 밝고 따뜻한 학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또래상담은 또래상담자 개인의 내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공감하고 배려하는 학급 및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래상담자의 역할

학교폭력에서의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학교 구성원들이 보고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의 효과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대로,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에서 실시한 또래상담자의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질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래상담을 받은 학생의

〈그림 1〉 학교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또래상담의 효과



입장에서 또래상담자는 비밀을 유지해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지원자이자 경청자로 보고되었다. 둘째, 교사의 입장에서 또래상담자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교실 문화를 창조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반 학생을 지지해줌으로써 힘든 학생들의 도움자이면서 상담자로서 보고되었다. 셋째, 학교장에게 있어 또래상담자들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문화 등 학교 내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고 전파하며, 학교폭력예방 관련 다양한 행사(심리극, 애플데이 등)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선도하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증진시켜주며,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조절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고민을 가진 학생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간의 가교역할을 해주며 학교 내 갈등이나 따돌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제 해결자, 조정자 및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그림 1). 이와 같은 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지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학교 및 학급 내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 내 배려와 공감 문화를 형성하고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즉 또래상담자는, 피해자를 돕고, 배려·공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지지자로서의 역할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오선영, 2012에서 재인용). 성규탁(1990)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지지, 충고, 안내, 정보제공, 물질적 원조,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및 서비스’로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Cohen & Wills, 1985; Olstad et al., 2001; 오선영, 2012에서 재인용). 김영아(2000)와 문성원, 한종철(1996)의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이 부모, 형제,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기숙, 박소영, 200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홍상욱, 엄경순, 배옥현, 2003). 학생 스스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개인이 문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주변 대인관계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이다(이동훈 외, 2010).

청소년은 발달적으로 부모 등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로 이행하면서 이전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문화적 환경

의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사회적지지 제공자는 친구 및 학급동료이다. 김명숙(1995)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을 비교하였고, 또래의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친구지지에 대한 사회적지지 지각이 가장 높고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1997; 이미리, 2001). 친구보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한성희, 2002; 장연정, 2002)도 있다. 하지만 이수경(2004)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또래, 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또래 간의 지각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기에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또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자는 고민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친구에게 또래상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안전감을 줄 수 있고, 피해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조력자로서의 역할

조력은 ‘힘을 써서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조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친사회적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행동으로 타인을 돕기, 보살피기, 위로하기, 타인과 협조하기 및 나누기와 같은 조력 행동들이 해당된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는 공격성이나 거짓말, 흠치기,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Perry & Bussey, 1984; Bandura et al., 1996; 김경연, 하영희, 1998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차원의 접근법이 일탈 및 비행행

동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은 최근 청소년의 긍정발달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청소년기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는 비행행동을 하는 또래와의 접촉이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Haynie & Osgood, 2005). 친사회적 행동은 비행행동과 반대 방향이지만 행동이라는 공통성 안에서 또래집단의 영향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김학령 외, 2011). 청소년이 또래를 향해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면, 친구들 역시 친사회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 또래집단은 친사회적 교환의 순환(cycles of prosocial exchange)으로 이끌리게 된다(Bukowski & Sippola, 1996; Eisenberg & Fabes, 1998; 김학령 외,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또래집단에서의 친사회적 교환의 순환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평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또래집단에서 발생하기가 쉬우며, 청소년의 도덕적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Bukowski & Sippola, 1996; 김학령 외, 2011에서 재인용).

이승미, 이경님(2008)의 연구는 청소년 본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이는 친구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델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연, 하영희(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친사회적 행동 및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사회화 요인으로 부모보다 친구에 대한 모델링 효과가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로 고민하는 친구가 학교 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또래상담자의 모습은 학교폭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관자 유형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 가해행동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조력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유형의 행동이 또래집단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

청소년기 성장을 돕고,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물론 다양한 상담기관에서 자원상담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름의 효과를 거두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을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전문상담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교사나 상담자보다 또래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구본용 외, 1994).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험과 성적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순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및 내적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한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에서 발표한 2012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로 오해와 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래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으로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갈등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갈등조정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여 해결방법을 찾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스트레스나 갈등에 대해 의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 고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의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최현주(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친구이며, 상담자이며, 역할모델이고, 때로는 문제 해결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은 갈등 상황이 발생한 또래집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래 간의 갈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또래갈등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자가 함께 생활하는 친구의 문제나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모색한 방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은 청소년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촉진자로서의 역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이 2012년에 실시한 또래상담의 효과성 분석 내용은 또래상담자가 심리극, 애플데이, 교내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 간의 싸움이 어린 시절에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어른들의 태도, 폭력을 가벼운 장난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학교의 태도는 학교폭력에 허용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우(2002)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적 문화가 형성된 학교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는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며, 학습 동기가 유발되어 학업 성취가 향상되는 것과 함께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이해와 존중, 소속감, 배려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학교 문화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허학도(2006)는 학교 공동체에 대한 특징으로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에는 학교구성원 간 신뢰형성, 유대관계, 상호협력, 학교구성원 각자 본분 및 역할 충실, 학교구성원의 애교심, 높은 소속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 경영,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강한 응집력, 구성원 간 상호이해, 관심, 배려, 애정, 학교 분위기에 대한 구성원의 높은 만족도, 학교구성원의 자율성, 주인의식, 높은 책임감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생의 주요 역할로 타인배려, 양보와 관용정신, 학교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교생활, 공동생활의 예절, 질서준수, 학교교

육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 주인의식, 학교자치활동 적극 참여, 애교심, 긍지, 공동체적 삶 인식과 실천, 원만한 인간관계, 교우관계 유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래상담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해 학급응집력이 향상되고(채연희, 이현림, 2003; 최혜숙, 이현림, 2005), 학급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이남희, 2005),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이나미, 2011) 등의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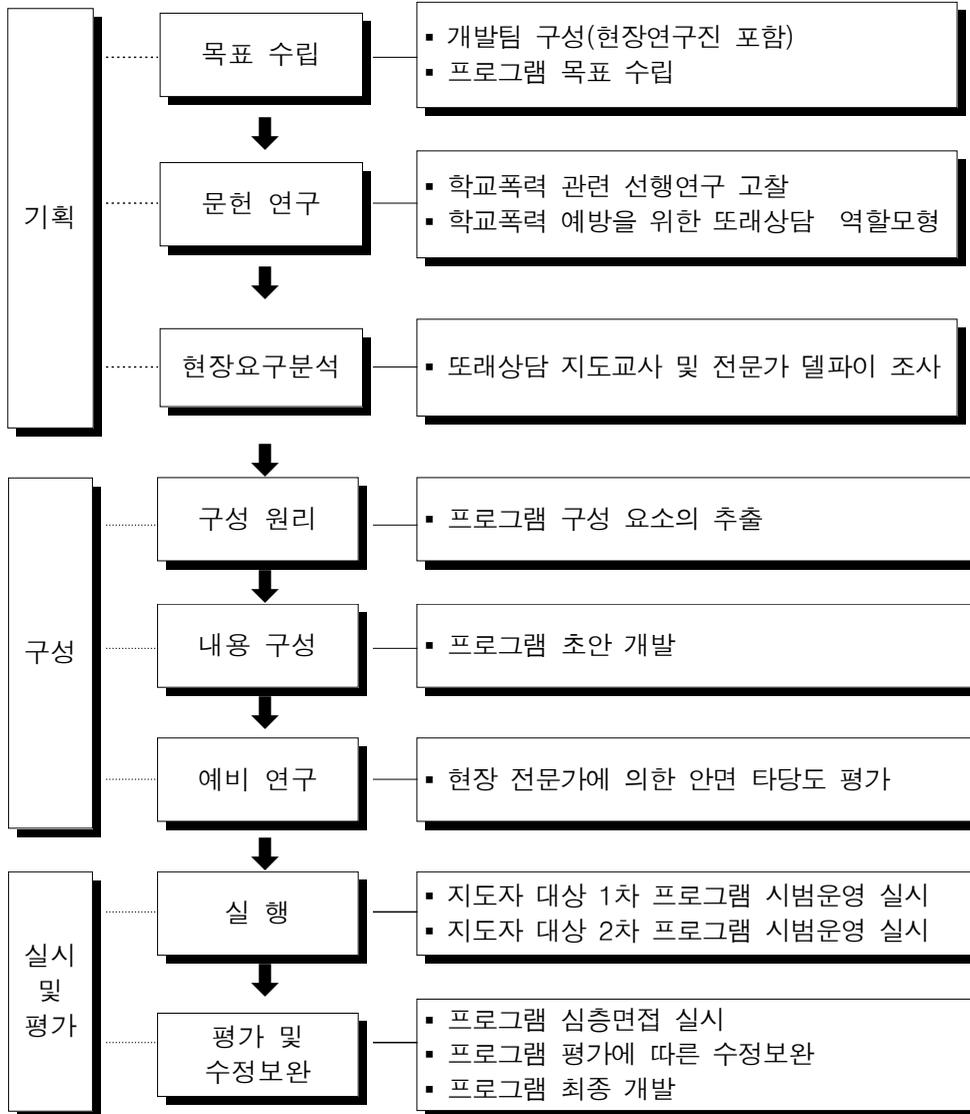
1. 프로그램의 개발

가.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전문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담당자, 또래상담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를 기획·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모형(김창대 외, 2011)



나.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획단계

가) 문헌 연구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래상담자, 또래내담자, 학급에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또래상담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이 기대된다. 본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자치활동의 효과성과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나)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1).

델파이 연구방법은 면대면 토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횡포, 권위 있는 어느 한 사람의 발언 영향, 사전조율에 의한 집단 역학의 약점, 한번 취한 입장의 고수 등 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패널식 조사연구이다. 델파이에서는 토론집단이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토론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구조화 한다. 이 구조화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응답자의 익명성, 통계적 집단 반응의 절차 등이 그것이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일반적으로 3-4회가 걸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성덕, 2006).

1회 질문,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이 상호접촉하지 않고 연구문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2회 질문, 1회의 개방형 설문으로 수집한 비체계적인 응답들을 편집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들을 만들어 다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질문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의 중요도,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3회 질문, 2회에서 회수한 전문가 집단의 반응에 대하여 집중 경향과 변산도(중앙치와 사분범위)를 산출한다. 3회 질문은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2회 델파이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집중경향과 변산도, 본인의 응답을 함께 피드백하여 각 질문에 대한 반응을 제공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다수의 의견과 벗어난 반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한다.

2) 구성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델파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따라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따라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학교공감배려문화 촉진자,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와 같이 총 6개의 영역으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조직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 함양 교육 부분과 또래상담자의 활동 부분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3) 실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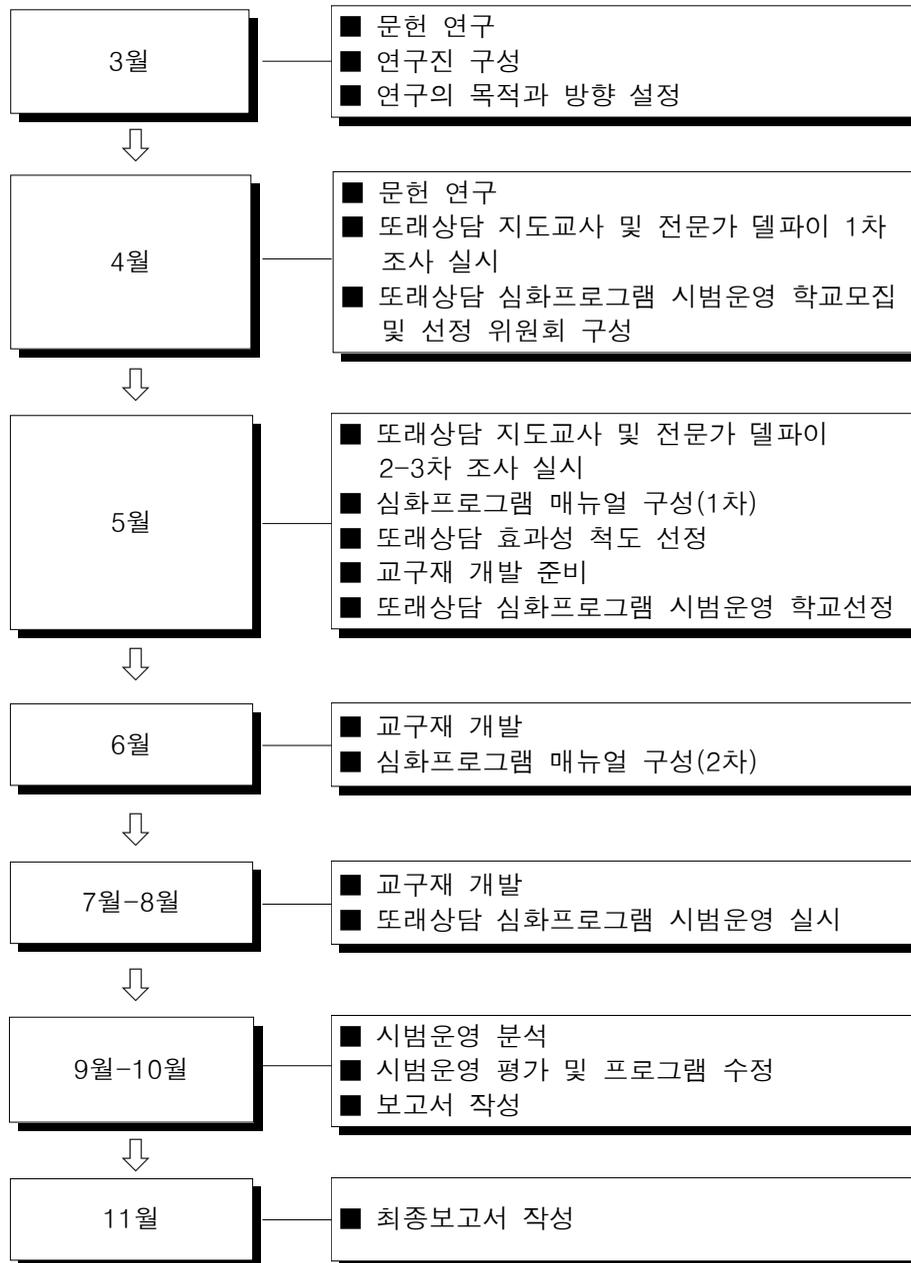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는 또래상담 지도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심화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4) 평가단계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의 자문평가, 또래상담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의 심층면접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초안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학교폭력 예방 심화프로그램은 전국의 또래상담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보급될 예정이다.

다. 프로그램 개발 연구일정

〈그림 3〉 연구 일정



2. 델파이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상담 기본교육 이후 실시되고 있는 심화교육은 또래상담 지도교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구상하기 위하여 또래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델파이 연구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구성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해 선정된 또래상담 전문가들은 총 23명이었으며, 청소년상담 전문가 3명,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사업 담당자 11명, 또래상담 지도교사 9명으로 선정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23명 모두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2차, 3차 모두 10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구성

전문가 집단의 구성	차수별 응답인원(명)		
	1차	2차	3차
학계 전문가	3	3	3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11	11	11
학교 지도교사	9	9	9
계	23명	23명	23명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23)	백분율(%)
성별	남	5	21.7
	여	18	78.3
연령	30-35세	3	13
	36-40세	4	17.4
	41-45세	8	34.8
	46-50세	6	26.1
	51-55세	1	4.3
	56-60세	1	4.3
최종학력	고졸	0	0
	대졸	3	13
	석사수료	0	0
	석사졸업	9	39.1
	박사수료	6	26.1
	박사졸업	4	17.4
최종 전공	기타	1	4.3
	사회복지학	2	8.7
	심리학	3	13
	교육학	14	60.9
	아동학	0	0
	가족학	2	8.7
	청소년학	0	0
	기타	2	8.7
또래상담 관련 경력	1년 미만	0	0
	1년 이상-3년 미만	4	17.4
	3년 이상-5년 미만	3	13
	5년 이상-7년 미만	4	17.4
	7년 이상-10년 미만	4	17.4
	10년 이상	8	34.8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위해 총 3개의 조사도구가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델파이 1차 설문지로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또래상담의 발전방향(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기술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델파이 2차 설문지로서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작하였다. 2차 설문지는 유사한 문항끼리 영역을 나누어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필요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필요, 7점 : 매우 필요)로, 실현가능성을 4점 리커트 척도(1점: 불가능, 4점: 가능)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는 각 영역마다 10순위까지 정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델파이 3차 설문지로서 2차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하여 각 문항별로 평균, 최빈치, 본인의 응답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차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추가의견을 바탕으로 신규문항을 추가하였고,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교육, 활동 영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차 델파이 설문지는 또래상담 전문가에게 e-mail로 보내졌으며, 다시 e-mail을 통해 응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델파이 조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에 기술된 바와 같다.

〈표 4〉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구 분	조사 기간	내 용	배포 형태	표집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제 1차 델파이	2013. 4.19-26	또래상담의 발전방향(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등)에 대한 개방형 질문	e-mail	25명	23명	92%
제 2차 델파이	2013. 5.16-24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및 우선순위	e-mail	23명	23명	100%
제 3차 델파이	2013. 6.05-12	2차 설문 결과로 나온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e-mail	23명	23명	100%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1-3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152개의 의견이 나왔으며, 비슷한 의견들은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59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설문에서는 59개의 의견과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33문항, 활동 26문항으로 각각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2차 설문은 1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우선순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과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문항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3차 설문은 2차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 한 후 유사한 변수는 통합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문항을 추가하여 교육 34문항, 활동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따라 평균, 최빈치, 본인의 응답을 제시하여 각 문항에 대해 다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활동의 각 영역에 따라 필요정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순위대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활동의 구성요소에 포함 될 부분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나. 연구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총 2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152개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들은 유사의견을 통합하여 59개의 의견으로 추출되었으며, 교육과 활동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23명의 전문가들은 1차 조사를 기초로 만들어진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교육과 활동영역 각각에 대하여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문항들에 대한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은 모두 전반적으로 동의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2차에서 이루어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평균 및 최빈치, 자신의 응답을 제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다시 한번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3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화 프로그램의 교육 및 활동 부분을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 순으로 제시하였다.

1) 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152개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유사 내용을 통합하고 수정한 결과 <표 5>와 같이 총 59개의 의견이 추출되었으며 이 의견들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교육과 활동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표 5〉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영역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또래상담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학습부진 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개입 방법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 라포형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단기개입에 유용한 해결중심상담기법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 프로그램교육이 필요하다. •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탐색 프로그램교육이 필요하다. •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 내담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접근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슈퍼비전)가 필요하다. • 또래상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갈등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표현하기, 타인과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등) •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갈등중재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비밀보장, 상담자의 책임과 한계 등) • 또래상담자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의미, 가/피해자 심리,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관련 법률에 대한 접근 등) •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또래상담의 의미, 타인을 돕는 가치 등) • 청소년 상담 관련 연계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레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관련 연구모임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관련 UCC 제작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관련 게임이 필요하다.(골든벨 게임 등) • 학교폭력 관련 토론대회가 필요하다. •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모의상담 시연회가 필요하다. • 또래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 •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이 필요하다. • 온라인으로 또래상담 커뮤니티 운영(카페, 블로그)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필요하다. • 사과데이 행사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학급이나 화장실 등에 명언 등을 게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고운말 쓰기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 활동지 발간이 필요하다. • 신입 또래상담자 교육에 보조지도자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 신입 또래상담자에 대한 사례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 온라인상의 또래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ex. 사이버또래상담자) • 갈등중재를 통해서 친구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 학급 내에서의 또래상담 활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 또래상담자들 간 사례회의가 필요하다. • 학급 친구에게 생일카드를 작성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 •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학급 친구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

나. 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또래상담 심화 교육 프로그램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교육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들의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의견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관련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내 용	필요 정도		실현 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5.74	1.14	3.04	0.77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5.35	1.50	3.22	0.74
학습부진 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4.09	1.50	2.74	0.96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개입 방법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4.87	1.18	3.04	0.71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52	0.73	3.83	0.39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5.30	1.58	2.74	0.92
학교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30	0.97	3.43	0.66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0	0.77	3.78	0.42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7	1.14	3.61	0.50
또래상담자의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6.74	0.45	3.78	0.42
라포형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0	0.88	3.83	0.39
단기개입에 유용한 해결중심상담기법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4	0.98	3.26	0.69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 프로그램교육이 필요하다.	5.00	1.51	3.22	0.80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탐색 프로그램교육이 필요하다.	4.91	1.47	3.35	0.65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교육이 필요하다.	5.87	0.69	3.57	0.60
또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96	1.02	3.74	0.45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	6.30	0.97	3.83	0.39
또래 내담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접근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4.96	1.58	3.04	0.64
또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슈퍼비전)가 필요하다.	6.39	1.08	3.61	0.66
또래상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6.09	0.95	3.65	0.49
또래상담자의 갈등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6.26	0.62	3.61	0.50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표현하기, 타인과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등)	5.78	0.85	3.43	0.51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70	0.88	3.43	0.51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0.85	3.43	0.51
또래상담자의 갈등중재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0.90	3.26	0.69
또래상담자의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비밀보장, 상담자의 책임과 한계 등)	6.35	0.71	3.87	0.34
또래상담자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의미, 가/피해자 심리,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관련 법률에 대한 접근 등)	6.17	0.89	3.57	0.59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3	0.83	3.48	0.59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83	1.03	3.52	0.67
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8	1.56	2.22	0.74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래상담의 의미, 타인을 돕는 가치 등)	6.00	0.95	3.52	0.59
청소년 상담 관련 연계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9	0.99	3.30	0.93
레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다.	4.26	1.14	3.04	0.71

<표 6>과 같이 경청 및 공감 훈련(6.74), 대인관계 문제(6.52), 또래상담자의 윤리에 대한 교육(6.35), 학교폭력 피해 상담(6.30),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6.30), 라포형성(6.30), 공동체 의식 향상 프로그램(6.30), 갈등대처 방법(6.26),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6.17), 또래상담의 긍정적 효과(6.09), 해결중심상담기법(6.04),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미션(6.00), 문제해결 방법(5.91), 갈등중재(5.91),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5.87),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 관리(5.83), 자기주장 훈련(5.78), 의사결정 방법(5.70), 청소년 상담 관련 연계(5.39)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견일치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사례에 대한 지도(슈퍼비전)(6.39),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 이해(5.96),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5.87), 리더십 향상(5.83), 자살 위기 개입(5.74), 성문제(5.35),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상담(5.30),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심리검사 프로그램(5.00)은 필요성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의견일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별적 상담접근(4.96),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4.91),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4.87), 레크리에이션(4.26), 학습부진 청소년 상담(4.09),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방법(3.48)에 관한 교육의 경우 필요정도와 의견일치율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각 의견들의 실현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동의하는 정도도 높았으나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의 실현가능성은 다른 의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2.22).

2) 또래상담 심화 활동 프로그램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또래상담자의 활동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에 비해 활동문항들의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평가자들의 의견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7〉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관련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내 용	필요정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이 필요하다.	5.57	1.44	3.13	0.97
학교폭력 관련 연구모임이 필요하다	4.87	1.29	2.83	0.83
학교폭력 관련 UCC 제작이 필요하다	5.04	1.55	3.13	0.87
학교폭력 관련 게임이 필요하다.(골든벨 게임 등)	4.87	1.33	3.04	0.83
학교폭력 관련 토론대회가 필요하다.	4.96	1.72	3.09	0.67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모의상담 시연회가 필요하다.	5.87	0.97	3.30	0.77
또래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	5.39	1.31	3.43	0.73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이 필요하다.	5.52	1.20	3.22	0.90
온라인으로 또래상담 커뮤니티 운영(카페,블로그)이 필요하다.	5.22	1.35	3.17	0.83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필요하다.	6.17	0.72	3.65	0.50
사과데이 행사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30	1.15	3.35	0.78
학급이나 화장실 등에 명언 등을 게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00	1.24	3.52	0.73
고운말 쓰기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6.13	0.92	3.65	0.65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6.00	1.51	3.52	0.73
또래상담자 활동지 발간이 필요하다.	5.48	1.28	3.22	0.80
신입 또래상담자 교육에 보조지도자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5.57	1.27	3.22	0.80
신입 또래상담자에 대한 사례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5.91	0.90	3.30	0.70
온라인상의 또래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ex. 사이버또래상담자)	5.48	1.53	3.04	0.98
갈등중재를 통해서 친구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5.83	1.07	3.13	0.87
학급 내에서의 또래상담 활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5.87	1.25	3.35	0.78
또래상담자들 간 사례회의가 필요하다.	6.30	0.82	3.57	0.59
학급 친구에게 생일카드를 작성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5.52	1.16	3.30	0.77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6.17	1.03	3.61	0.66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	5.26	1.36	2.91	0.79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6.48	0.85	3.57	0.84
학급 친구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4.91	1.41	2.65	0.89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의견들 중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에게 상담자 연계(6.48), 또래상담자들 간 사례회의(6.30),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6.17), 고운말쓰기 캠페인 활동(6.13), 신입 또래상담자에 대한 사례지도활동(5.91), 또래상담 모의상담 시연회(5.87)에 대한 필요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간 동의하는 정도도 높았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기(6.17),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6.00), 학급 내 또래상담 활동계획 세우기(5.87), 갈등중재를 통해 친구 돕기(5.83),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5.57), 신입또래상담자 교육 보조지도(5.57), 학급친구에게 생일카드 작성(5.52), 온라인상의 또래상담(5.48), 또래상담자 활동지 발간(5.48), 또래상담 우수사례집 발간(5.39), 사과데이 행사 시 편지배달(5.30),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5.26), 지역 내 또래상담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등) 운영(5.22), 학교폭력 관련 UCC 제작(5.04), 학급, 화장실 등에 명언 게시(5.00)는 필요정도는 높으나 동의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학교폭력관련 연구모임(4.87), 학교폭력 관련게임(골든벨 게임 등)(4.87), 학교폭력관련 토론회(4.96), 학급친구 학습 돕기(4.91) 활동들은 심화프로그램에 필요정도도 낮고 의견 일치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의견 동의 수준도 높았으나 학교폭력관련 연구모임(2.83),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2.91), 학급친구 학습 돕기(2.65)의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다. 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또래상담 심화 교육 프로그램

3차 설문은 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의견은 통합하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추가하여 2차 설문결과의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최빈치, 자신의 응답값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교육 및 활동의 각 항목에 대한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음 <표 8, 9>과 같으며, 항목 제시 기준은 첫째, CVR 값이 높을수록, 둘째, 평균값이 높을수록, 셋째, 표준편차가

작은 순으로 제시함으로써 또래상담 심화 교육 프로그램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관련 필요정도 결과

내 용		필요정도		
		M	SD	CVR
성장 하는 또래 상담자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6.65	0.57	1.00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0	0.63	1.00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4	0.77	1.00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레스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5.91	0.60	1.00
	또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96	0.88	0.91
	또래상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1.16	0.74
	또래상담자 소진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5.57	1.27	0.57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교육이 필요하다.	4.96	1.15	0.39
정서적 지지자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탐색교육이 필요하다.	4.78	1.13	0.39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6.70	0.47	1.00
	다양한 감정인식 및 표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9	0.58	1.00
	학교폭력 피해친구의 심리(위축, 고립감 등)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9	0.66	1.00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라포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3	0.84	0.91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26	0.71	0.91
조력자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0	0.80	0.91
	또래내담자의 사회성향상기술(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57	0.59	1.00
	학교폭력 방관자(방관 및 무관심 등)의 심리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9	0.58	1.00
문제	‘도움’의 의미 및 행동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6	0.98	0.74
	또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슈퍼비전)	6.78	0.42	1.00

해결자	가 필요하다.			
	또래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좌절, 우울, 절망, 분노 등)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13	0.76	0.91
	대인관계 갈등관리 및 중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9	0.79	0.91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0	0.90	0.91
	해결중심상담기법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6	0.88	0.91
	문제해결방법(스트레스 대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0.67	0.91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7	0.87	0.91
	청소년의 성문제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0.95	0.83
	인터넷 중독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48	0.90	0.83
	전문상담자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74	0.92	0.74
학교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	6.57	0.59	1.00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43	0.59	1.00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6.04	0.71	1.00
지역 사회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57	1.04	0.65
	청소년 권리 옹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0	0.93	0.48
	청소년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22	0.90	0.48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 부분의 필요정도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의 영역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교육(6.65),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한 교육(6.30),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 관리에 대한 교육(6.04),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5.91)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서적 지지자 영역에서는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교육(6.70), 다양한 감정인식 및 표현에 대한 교육(6.39), 학교폭력 피해친구의 심리에 대한 교육(6.39)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력자 영역에서는 또래내담자의 사회성향상기술에 대한 교육(6.57), 학교폭력 방자의 심리에 대한 교육(6.39)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넷째, 문제해결자 영역에서는 또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6.7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의 영역에서는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 의식 향상 프로그램(6.57),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

(6.43),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 교육(6.04) 모두 필요정도가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촉진자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의 필요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공동체 의식(5.57), 권리옹호교육(5.30), 양성평등교육(5.22) 순으로 필요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9〉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내 용		실현가능성		
		M	SD	CVR
성장하는 또래 상담자	또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3.61	0.50	1.00
	또래상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61	0.50	1.00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4	0.54	0.91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0	0.56	0.91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3.48	0.59	0.91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3	0.59	0.91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 교육이 필요하다.	3.30	0.63	0.83
	또래상담자 소진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0	0.63	0.83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탐색 교육이 필요하다.	3.30	0.70	0.74
정서적 지지자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라포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74	0.45	1.00
	학교폭력 피해친구의 심리(위축, 고립감 등)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8	0.51	1.00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3.65	0.57	0.91
	다양한 감정인식 및 표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8	0.59	0.91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52	0.67	0.83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9	0.66	0.83
조력자	또래내담자의 사회성향상기술(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3.70	0.47	1.00
	‘도움’의 의미 및 행동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52	0.59	0.91
	학교폭력 방관자(방관 및 무관심 등)의 심리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3	0.59	0.91
문제 해결자	또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슈퍼비전)가 필요하다.	3.70	0.47	1.00

	문제해결방법(스트레스 대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43	0.59	0.91
	전문상담자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9	0.66	0.83
	대인관계 갈등관리 및 중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5	0.65	0.83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0	0.63	0.83
	청소년의 성문제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7	0.65	0.74
	또래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좌절, 우울, 절망, 분노 등)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7	0.72	0.65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7	0.72	0.65
	해결중심상담기법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09	0.67	0.65
	인터넷 중독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00	0.60	0.65
학교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65	0.49	1.00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52	0.51	1.00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	3.74	0.54	0.91
지역 사회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청소년 권리 옹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09	0.67	0.6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7	0.83	0.48
	청소년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00	0.74	0.48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교육부분의 실현가능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9>과 같다. 앞서 살펴본 심화프로그램 교육 부분의 필요정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영역별로 필요정도와 실현가능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영역에서는 또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3.61), 또래상담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교육(3.61)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서적 지지자 영역에서는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에 대한 교육(3.74)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 피해 친구의 심리에 대한 이해(3.48) 교육이 그 다음 순으로 실현가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력자 영역에서는 또래내담자의 사회성향상기술에 대한 교육(3.70)이 실현가능성 정도가 가장 높았고, 넷째, 문제해결자 영역에서는 또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3.70)가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 영역에서는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3.65),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 교육(3.52)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섯째,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촉진자 영역에서는 필요정도와 마찬가지로 실현가능성 정도가 비교적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상담 심화 활동 프로그램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부분 역시 앞서 살펴본 교육부분과 같이 필요도와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 11>과 같다.

먼저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부분의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첫째,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영역에서는 또래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6.22), 또래상담 관련 홍보(6.48) 순으로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지지가 영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6.30),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또래내담자와 대화하는 활동(6.30)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조력자에서는 외로운 친구의 학교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6.35), 학교폭력 위협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것(6.26) 순으로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제해결자에서는 또래친구들 간의 중재활동(5.96)이 필요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섯째,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에서는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6.09),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5.74) 순으로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촉진자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포럼 및 토론회 참여(5.91),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5.87),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 기관 탐방(5.74) 순으로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 부분에서의 실현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면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에서는 또래상담 관련 홍보활동(3.65), 또래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3.52)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았고 둘째, 정서적 지지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서 문자, 이메일 보내기 활동(3.52), 감

정카드를 활용하여 또래내담자와 대화하기(3.52) 순으로 실현가능성 정도가 높았다. 셋째, 조력자에서는 필요정도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친구의 학교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3.43), 학교폭력 위협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것(3.17)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문제해결자의 경우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활동(3.78), 또래상담자들 간 사례회의(3.61)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에서는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3.65), 고운말쓰기 캠페인 활동(3.61)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촉진자에서는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 기관 탐방(3.30)과 지역 내 상담 관련 기관의 교육 및 행사 등에 참여(3.30)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관련 필요정도 결과

	내 용	필요정도		
		M	SD	CVR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가 필요하다.	6.22	0.74	1.00
	또래상담 관련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또래상담반 교내 홍보, 또래상담 활동 홍보 등).	6.48	0.67	0.91
정서적 지지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6.30	1.02	0.91
	감정카드(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또래내담자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09	0.85	0.91
조력자	외로운 친구의 학교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이동 수업 시 함께 가기, 점심식사 같이 먹기, 준비물 함께 사기 등)이 필요하다.	6.35	0.83	0.91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6.26	0.75	0.91
문제 해결자	또래 친구들 간의 갈등중재 활동이 필요하다.	5.96	0.71	1.00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6.64	0.66	0.91
	또래상담자들 간 사례회의가 필요하다.	6.52	0.73	0.91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모의상담 시연회가 필요하다.	6.04	0.82	0.91
	신입 또래상담자에 대한 사례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6.00	0.90	0.83
	온라인 상의 또래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ex. 사이버또래상담자)	5.74	1.05	0.74
학교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지역 내 청소년 지원연계 기관(예: 정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기관, 쉼터 등) 에코맵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5.57	0.99	0.74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필요하다.	6.09	0.67	1.00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이 필요하다.	5.74	0.81	1.00
	고운말 쓰기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6.00	0.80	0.91
	학급 내 창의적인 또래상담 활동을 기획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5.96	0.71	0.91
	사과데이 행사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70	0.88	0.91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6.22	0.90	0.83
	또래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	5.70	0.97	0.83
	또래상담자 활동지 발간이 필요하다.	5.70	0.97	0.74
	학교폭력 관련 토론대회가 필요하다.	5.26	1.36	0.48
지역 사회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포럼 및 토론회 참여가 필요하다.	5.91	0.79	0.91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학교폭력 근절캠페인, 금연캠페인, 양성평등, 청소년권리옹호 등)	5.87	0.92	0.83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이 필요하다.	5.74	0.92	0.83
	지역 내 상담 관련 기관의 교육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5.74	1.01	0.65

〈표 11〉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활동관련 실현가능성 결과

내 용		실현가능성		
		M	SD	CVR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관련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또래상담반 교내 홍보, 또래상담 활동 홍보 등).	3.65	0.57	0.91
	또래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가 필요하다.	3.52	0.67	0.83
정서적 지지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3.70	0.56	0.91
	감정카드(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또래내담자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52	0.67	0.83
조력자	외로운 친구의 학교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이동 수업 시 함께 가기, 점심식사 같이 먹기, 준비물 함께 사기 등)이 필요하다.	3.43	0.66	0.83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3.17	0.78	0.57
문제 해결자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3.78	0.52	0.91
	또래상담자들 간 사례회의가 필요하다.	3.61	0.58	0.91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모의상담 시연회가 필요하다.	3.39	0.58	0.91
	신입 또래상담자에 대한 사례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3.35	0.71	0.74
	또래 친구들 간의 갈등중재 활동이 필요하다.	3.22	0.67	0.74
	온라인 상의 또래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ex. 사이버또래상담자)	2.96	0.82	0.57
	지역 내 청소년 지원연계 기관(예: 정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기관, 쉼터 등) 예코맵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2.91	0.85	0.39
학교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필요하다.	3.65	0.57	0.91
	고운말 쓰기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3.61	0.66	0.83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3.57	0.51	0.74
	또래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	3.26	0.81	0.74
	사과데이 행사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3.39	0.78	0.65
	학급 내 창의적인 또래상담 활동을 기획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3.22	0.74	0.65
	또래상담자 활동지 발간이 필요하다.	3.13	0.76	0.57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이 필요하다.	3.09	0.85	0.57
	학교폭력 관련 토론대회가 필요하다.	2.91	0.73	0.39
지역 사회 공감 배려 문화 촉진자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이 필요하다.	3.30	0.76	0.65
	지역 내 상담 관련 기관의 교육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30	0.76	0.65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학교폭력근절캠페인, 금연캠페인, 양성평등, 청소년권리옹호 등)	3.26	0.75	0.65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포럼 및 토론회 참여가 필요하다.	3.13	0.87	0.39

종합적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화 프로그램 교육 부분의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 또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정서적 지지자에서는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교육, 다양한 감정 인식 및 표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조력자에서는 또래내담자의 사회성향상기술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 방관자의 심리 이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문제해결자 부분에서는 또래상담자 간의 사례지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정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에서는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육, 학교폭력의 이해, 예방 및 대처, 리더십 향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촉진자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및 실현가능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화 프로그램의 활동 부분에서는 성장하는 또래상담자로서 또래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 또래상담 관련 홍보 활동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자 부분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또래내담자와 대화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력자에서는 외로운 친구의 학교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자에서는 또래 친구들 간의 갈등 중재 활동이 가장 필요하며, 실현가능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학교공감배려문화 촉진자에서는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가장 필요하며, 실현가능성 또한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포럼 및 토론회 참여,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델파이 3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따라 필요정도가 높은 두 세개 정도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화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 부분의 구성요소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교육 및 활동부분에는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난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을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추출하였다.

정서적 지지자의 교육부분에서는 다양한 감정인식 및 표현, 대화기법(경청 및 공감)에 대한 교육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활동부분에서는 감정카드를 활용한 내담자의 대화하는 활동,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조력자의 교육부분에서는 사회성향상기술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 방관자의 심리 이해에 대한 교육요인으로 추출하였고, 활동부분에는 외로운 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활동을 추출하였다.

문제해결자의 교육부분에서는 또래상담자 간의 사례지도 교육의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활동 부분에서는 갈등 중재활동의 필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갈등 중재 교육을 교육부분으로 추출하였으며, 또래상담자 간의 사례지도 교육은 활동부분으로 추출하였다. 이는 또래상담 기본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때, 또래상담자간 사례지도는 또래상담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련이 깊은 반면, 갈등 중재교육은 기본 교육과는 다소 새로운 개념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공감배려문화 촉진자의 교육 및 활동부분에서는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난 심리극 공연을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추출하였다. 교육과 활동 부분에서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난 배려 존중 공동체 의식, 멘토 멘티 활동, 리더쉽 향상 교육은 지역사회 공감배려 문화 촉진자,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부분에서 다루는 바, 이 회기에서는 심리극 공연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의 교육부분에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요인으로 추출하였고, 활동부분에서는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 및 캠페인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추출하였다.

3. 구성 단계

가. 프로그램 구성 원리

1) 프로그램 구성 원리

기존의 문헌 연구와 델파이 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심화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 문헌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또래상담자들은, 지지, 조력, 상담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학교 내 공감배려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피해자를 돕는 또래상담과 공감배려문화를 형성하는 또래상담으로 크게 나누었다. 먼저 피해자를 돕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로 세분화하였는데, 문헌조사를 토대로, 지지자의 역할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 주어 정서적·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 도움자의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방어행동을 해주거나, 밥을 같이 먹는 등 행동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 문제해결자의 역할은 상담을 통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공감배려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공감배려문화의 촉진자와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배려문화의 촉진자로 구분하였다. 학교에서의 공감배려문화의 촉진자란 학교나 학급내 친구들끼리 폭력을 허용하고 방관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친구들끼리 공감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배려를 촉진시키는 활동들은 학교 내 활동에 제한받지 않고 지역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또래상담자들이 지역 모범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지역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또래상담자는 지역사회

회 공감배려문화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를 돕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의 활동인 개인적인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래상담자 개인차원의 역할이며, 배려 공감 문화의 촉진 역할은 역할극 공연, 캠페인 등 또래상담반이나 동아리 차원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또래상담 동아리 차원의 역할로 구분할 수도 있다. <표 12>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따른 구성모형이다.

<표 12>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구성 모형 - 또래상담자 역할

구분	또래상담자의 역할	역할의 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위한 자질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이해와 역할 이해	* 또래상담에 대한 사명감 및 책임감 * 자기수용 * 셀프 리더쉽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적극적 경청을 통해 친구의 고민을 들어 주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지지 격려해줌	* 신뢰성 및 친화력 * 감수성 및 감정표현능력 * 의사소통 능력 * 공감(조망수용능력)
	조력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를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도와줌	* 사회성 * 자기표현 및 자기주장 * 배려심 및 친사회성
	문제해결자	친구의 문제를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줌	* 문제해결능력 * 갈등관리능력 * 중재능력
공감배려 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학교 내 폭력을 허용하고 방관하는 분위기를 줄이고, 친구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촉진시켜줌	* 긍정 학교 또래문화 형성에 참여의식 * 공동체 의식 * (창의적) 리더쉽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지역 내 서로 공감, 소통, 배려하는 문화를 촉진시킴으로 지도자로 성장	*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 지역사회 리더쉽 * 평등의식

이렇게 명료화된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육과 활동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는 텔파이 연구 결과, 또래상담자 심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또래상담자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부분과 또래상담자의 활동 부분에 대한 심화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됨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교육과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그램의 교육 영역은 또래상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문헌연구와 텔파이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또래상담자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내용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둘째, 활동 영역은 역할에 따라 수행하는 또래상담자들의 실제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따른 활동부분은 텔파이연구와 문헌연구, 특히 또래상담관련 보고서(또래상담우수상담사례집, 2012년 또래상담사업보고서,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 2013년 중점학교 사업설명회 보고서 등)를 통해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역할 역량강화를 위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기초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또래상담 활동을 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기초프로그램 이후 또래상담자로서의 자신의 동기, 강점, 약점을 정리하고,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보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13>은 또래상담 역할에 따른 교육과 활동 영역의 구성요인이다.

〈표 13〉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구성 모형 - 심화프로그램 구성요인

영역	역할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활동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의 자기 이해(장점, 잠재력) 및 시간관리 *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 보장 *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사명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행동 강령 정하기 * 또래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하기
고민 있는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인식 및 표현 * 대화기법(경청, 공감, 질문, 요약 등) * 친밀감 및 신뢰감(라포형성)에 대한 교육 * 학교폭력 피해친구 심리(위축, 고립감 등)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카드(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청 및 공감훈련)를 가지고 친구와 대화하기 * 고민 있는 친구(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문자 및 이메일 보내기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의 의미 및 행동 전략 * 사회성기술향상(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 방관자(방관 및 무관심 등)의 심리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에 대한 방어·도움 행동하기 * 외로운 친구와 함께 생활하기(이동수업시 함께 가기, 점심식사 같이 먹기, 준비물 함께 사기, 친구 소개하기, 생일축하 메시지 보내기)
	문제 해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 및 중재 * 또래상담자 간의 사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중재하기 *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기 * (또래상담자간) 사례회의
공감배려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 의식 *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 *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 * 또래상담자간 멘토-멘티 활동하기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담 관련 기관 연계하여 교육 및 행사 참여하기(길거리 이동상담, 자원봉사활동, 튜터링 등)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하기(캠페인 활동 등) * 지역 연합회 활동(캠프, 후배 사례지도 등)하기

2) 프로그램 구성 목표

앞의 구성 원리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하위 목표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래상담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해당된다.

첫째, 또래상담자는 정서적지지, 조력, 문제해결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둘째, 또래상담자는 방관, 무관심, 괴롭힘 등의 폭력의 문화가 허용되고 용인되는 학급이나 학교 분위기를 공감과 배려의 문화를 바꾸는데 공헌한다.

셋째, 또래상담자는 지역사회에 배려와 공감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지역사회 모범적인 청소년 지도자로서 성장한다.

넷째,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을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3) 프로그램 운영원리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또래상담 기초교육을 이수한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운영한다. 2012년 또래상담자 60,681명이 또래상담 기초교육을 받아 또래상담자로 양성되었으며 이중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또래상담자로 2013년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또래상담자는 65,000을 새로이 기초교육을 통해 양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기초교육을 받은 후 또래상담자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 이후 또래상담자를 보수교육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비하여 또래상담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분 6회기와 활동부분 6회기의 총 12 회기

로 구성되며,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지도자 1명 또는 2명이 또래상담자 10-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부분은 한 회기 당 45-50분으로 구성하며, 활동 부분은 한 회기 당 90분-1시간 40분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순서는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학교공감촉진자, 지역사회 공감촉진자 순으로 진행하고, 각 영역별로는 교육부분을 먼저 운영한 후 활동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에서 지역사회 공감촉진자로의 운영순서를 정한 원칙은 먼저, 성장하는 또래상담자나 정서적 지지자와 같은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앞 순서에 배치했으며,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정서적 지지, 조력, 문제해결)을 동아리차원에서 함께 하는 활동(학교공감배려문화 촉진, 지역사회배려문화 촉진)보다 앞 순서에 배치하였다. 개인적 활동 영역에서는 먼저,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영역에서 또래상담자로서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등 또래상담자 개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즉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보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역할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동아리차원에서의 활동도 학교폭력예방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학교배려문화 영역을 지역사회 배려 문화 영역보다 앞 회기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은 교육 1회기와 활동 1회기의 총 2회기로 구성되며, 홀수 회기(1, 3, 5, 7, 9, 11회기)는 교육 부분이며, 짝수 회기(2, 4, 6, 8, 10, 12회기)는 활동 부분이다.

각 회기 프로그램 지도자의 욕구와 판단에 따라 활동부분이나 교육부분 중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선택시 또래상담자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은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순으로 선택하고 동아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에서는 학교공감배려 촉진자와 지역사회 공감촉진자순으로 선택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는 회기수가 앞에 있을수록 보다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서는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와 정서적 지지자, 동아리 활

동영역에서는 학교공감배려 촉진자를 진행하기를 권한다.

넷째,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한 상담사례, 실제적인 지식,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술, 활용도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감정카드나 고운 말 목록 등 또래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재를 제작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교육이 또래상담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또래상담지도자용 지침서, 또래상담자용 교재, 교육 워크북을 제작하여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를 돕고자 하였다.

나. 프로그램 초안 구성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기초 또래상담 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 10-15명을 대상으로 총 12회기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관련 프로그램 6회기와 또래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관련 프로그램 6회기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초안은, 앞에 표 12와 표13에서 제시한 또래상담 구성 모형을 토대로 최종 델파이 3차를 실시하여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과 활동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2-3개 정도의 내용을 선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14〉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세부 내용

영역	회기	목표	세부 내용	참고자료 (지도자 지침서)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교육 회기	또래상담자는 자신을 이해하고 또래상담자로서 원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운다.	1. 친해지는 마당 2. 또래상담자로서의 나-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또래상담자 시간관리	I. 나는 또래상담자 다(교육) p 3-10
	활동 회기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자로서의 한계와 윤리를 이해한다.	1. 또래상담자 역할 한계 알기 2. 또래상담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 파악하기 3. 또래상담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 실천하고 평가하기	II. 또래상담자 행동다짐 (활동) p 11-13

정서적 지지자	교육 회기	또래 친구의 정서적 지지자로서 감정 반영 방법과 다양한 감정의 단어 및 수준에 대해 알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2. 감정 반영에 대해 알아보기 3.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 알아보기 4. 정리하기 	III.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또래상담자 (교육) p 14-24
	활동 회기	또래상담자로서 친구의 고민을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능력이 향상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법 배우기 - 경청 및 공감하기/어기역차/잠하들셋/I-message/원무지계 2. 사이버 상담에서의 상담방법 배우기 3. 다양한 감정에 대한 고민 들어주기 - 좌절감정/실망감정/분노감정/갈등감정 	IV.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또래상담자 (활동) p 25-34
조력자	교육 회기	또래 친구의 조력자로서 조력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하고, 조력이 필요한 상황과 조력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실에서의 관심 대 무관심 인식 2. 조력에 대해 이해하기 3. 조력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 이해하기 4. 조력행동의 효과 이해하기 	V. 행동으로 도와주는 또래상담자 (교육) p 35-46
	활동 회기	또래상담자로서 도움을 주는 능력이 향상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가가기 - 조력이 필요한 친구 찾기 2. 공일이·친한이 되기 3. 필요한 도움 파악하기 4. 조력하기 	VI. 행동으로 도와주는 또래상담자 (활동) p 47-63
문제 해결자	교육 회기	또래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재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돕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2. 엷힌 마음, 갈등 이해하기 3. 갈등중재방법 배우기 	VII. 또래해결자로서의 또래상담자 (교육) p 64-74
	활동 회기	또래상담자로서 사례관리를 하고 서로의 상담 사례를 도와주는 능력이 향상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례 기록지 작성하기 2. 사례 선정하기 3. 또래상담자 간 슈퍼비전 4. 종결하기 	VII. 또래해결자로서의 또래상담자 (활동) p 75-93

학교 공감 촉진자	교육 회 기	또래상담자는 학교 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을 위해 심리극 기법 및 연기하는 방법을 배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몸으로 표현하기 2. 연기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와 동작 연기하기 3. 심리극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자아 기법 배우기 - 빈의자 기법 배우기 	IX.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심리극 (교육) p 94-102
	활 동 회 기	또래상담자는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을 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 극화 쓰기(대본 쓰기) 2. 심리극 공연 단계 이해하기 3. 완성 대본 수정 및 실연하기 	X.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심리극 (활동) p 103-108
지역사회 공감 촉진자	교 육 회 기	또래상담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지역 내 상담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2.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3. 지역 내 상담기관 연계하기 4. 느낌 나누기 	XI. 지역사회 공감배려 촉진자 (교육) p 109-110
	활 동 회 기	또래상담자로서 지역사회 공감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이 함양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길거리 이동 상담하기 2. 자원봉사 활동 3. 튜터링 활동 4. 지역 연합회 활동 5. 지역 캠프 참여 6. 캠페인 활동 	XII. 지역사회 공감배려 촉진자 (활동) p 111-116

4. 시범운영 평가 및 결과

가. 시범운영 진행과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또래상담 지도자가 또래상담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시범운영을 위해 또래상담지도자에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평가결과를 수집하였다. 시범운영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시범운영은 9월 또래상담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시범운영은 10월 또래상담전문지도자(또래상담 지도자를 양성하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시간은 총 7시간이었으며, 교육에는 본 책임연구진 및 공동연구진 5인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나. 시범운영 참여자

시범운영의 참여자는 총 69명으로 이들은 최소 3년 이상 또래상담자를 교육·지도하고 있는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이다. 1차 시범운영 참여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지도자 33명과 학교 또래상담지도교사로 12명, 총 45명이었다. 2차 시범운영 참여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또래상담전문지도자 24명이다.

다. 시범운영 평가 개요

개발된 프로그램 구성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시범운영 후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참여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도구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자원, 교육훈련 환경, 훈련 담당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Sanderson, 1995, 이호준, 2006에서 재인용) 주로 교육 참가 당사자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 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이호준, 2006). 최근 몇몇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참여자 관점 평가는 참여자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 구성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양미진, 고흥월, 이동훈, 김영화, 2011;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 2012)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와 더불어 구성된 내용이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1차 시범운영 실시 후 참여자 관점 평가와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1차 시범운영 전에 4명의 전문가에게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감수를 받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에의 활용성과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지도자 및 또래전문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현장 활용도에 대한 평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상담기관이나 학교에 보급할 때 그 가능성 및 활용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양미진 외, 2011)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요한 평가 요인이다. 질적 연구는 현장에 밀착해서 현장의 역동적인 의견을 반영하는데 용이하고,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응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용이한 바(최성규, 황석윤, 이정연, 2011) 현장의 또래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모든 유형(또래상담자, 또래상담 지도자, 또래상담 전문지도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현장 활용도에 대한 평가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 내용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활용성, 운영 적절성, 학교폭력 예방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시범운영에 참가한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또래상담자 대상 현장 활용성 평가를 위해 또래상담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교육을 한 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라. 시범운영 평가 결과

1)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또래상담 지도자 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최소 3년 이상 또래상담자들을 교육지도하고 있는 또래상담 지도자들로써, 이중 12명은 학교 교사이며, 57명은 시도상담센터 실무자였다.

나) 측정 도구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더불어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호준(2006)이 개발한 참가자 관점 평가 도구를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 관점 평가 도구는 효과성, 참여성, 충실성, 신뢰성, 편의성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효과성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지각되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참여성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및 운영과정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하위요인이다. 충실성은 이를 전달하는 강사의 준비성, 태도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느끼는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이

〈표 15〉 참여자 관점평가 하위요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성	8, 14, 24, 3, 17
참여성	22, 21, 13, 15, 11
충실성	6, 5, 1, 12, 23, 20
편의성	4, 10
효과성	16, 9, 7, 18, 19, 2

다. 또한 신뢰성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이며, 편의성은 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의 여건과 관련된 요인이다. 효과성, 참여성, 충실성, 신뢰성, 편의성의 각각의 신뢰도는 .82, .80, .85, .56, .65로 나타났다.

다) 평가 결과

참여자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5가지 영역-효과성, 참여성, 충실성, 신뢰성, 편의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평균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척도가 5점 리커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참여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프로그램의 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척도 간 평균 차이를 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편의성(4.48)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보였으며, 신뢰성(4.27)과 충실성(4.19)도 높은 평가를 나타냈다. 이는 참여자들이 시범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프로그램 교육 방식이나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교육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운영의 지도자들은 긍정적인 모델링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효과성(4.07)과 참여성(4.02) 모두 4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적절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N = 69)

요인	평균
신뢰성	4.27
충실성	4.19
효과성	4.07
편의성	4.48
참여성	4.02

2)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도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또래상담 지도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1차 또래상담 지도자 대상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최소 3년 이상 또래상담자들을 지도한 또래상담지도자로서, 이중 12명은 학교 교사이며, 28명은 시도상담센터 실무자였다.

나) 측정 도구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회기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지를 프로그램 운영 후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즉 회기별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으로 각 회기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결과

전체 프로그램 느낌에 대한 평가 점수는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참여자들은 4.24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회기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또래상담 지도자들은 모든 회기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공감촉진자의 교육(4.59)과 활동(4.56) 회기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공감촉진자 교육(4.36)과 활동(4.20),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의 교육(4.22)과 활동(4.31) 회기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지지자의 경우 교육(4.26)에 비해 활동(4.09)이, 조력자의 경우 교육(4.22)에 비해 활동(4.08)이, 문제해결자의 경우 활동(4.20)에 비해 교육(4.03)이 낮게 나타났다.

〈표 17〉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도

(N = 40)

회기별		평균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교육	4.22
	활동	4.31
정서적 지지자	교육	4.26
	활동	4.09
조력자	교육	4.22
	활동	4.08
문제해결자	교육	4.03
	활동	4.20
학교공감촉진자	교육	4.59
	활동	4.56
지역사회공감촉진자	교육	4.36
	활동	4.20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식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기관리(시간관리를 포함) 및 자기 점검의 시간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만족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소개된 체

크리스트의 용어나 활용에 대한 가이드가 좀 더 구체적이기를 원했으며, 윤리강령이 다소 딱딱하고 명령식이어서 거부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정서적 지지자에 관해서는, 교육 회기에서는 감정빙고 게임, 다양한 감정 탐색 및 이해 등이 적절하고 흥미로웠다고 보고되었다. 단 활동 회기에서 내용이 방대한 대신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점수에서 교육과 활동 부분의 차이가 다소 컸던 이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력자 부분과 관련하여, 공감/보상 부분으로의 조력의 개념 이해, 조력자의 역할 이해, 조력 역할극의 구체적 예시, 조력행동의 구체적 전략 이해, 다양한 조력 활동 예시 등 대체적으로 내용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단, 활동 회기와 관련하여, 교육회기에서의 내용과 구분이 어렵고, 실제 상황에서 조력행동을 할 수 있는 시연활동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점수에서 교육과 활동 부분의 차이가 다소 컸던 이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제해결자와 관련하여, 사례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갈등해결 및 갈등 중재 역할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다소 또래상담자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다수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자라는 용어와 역할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점, 갈등중재·갈등조정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용어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또래상담자로서의 갈등 중재자의 역할의 거부감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문제해결자에 대한 회기별 평가 점수가 비교적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음과 일치한다.

다섯째, 공감배려 문화를 촉진하는 또래상담자 부분과 관련해서, 공감 문화 형성으로 심리극 선택의 적절성, 심리극에 대한 현장 욕구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는 점, 심리극의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단, 심리극을 전혀 모르는 교사를 위해 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여섯째, 지역사회 공감문화촉진자와 관련하여, 지도 만들기, 지역 기관 파악, 활동 동영상 등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 전에 대하여 또래상담자와 또래상담 지도자를 양성하는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로서 1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4명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서면 감수를 받았다. 3명은 상담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1명은 상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전문가 감수 결과,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 해결자, 공감배려 촉진자의 흐름이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 활동 편으로 나눈 것은 좋은 기획이고 실제 현장에서 또래상담자의 다양한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단,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회기 별로, 성장하는 또래상담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팁이 생겼으면 좋겠고, 정서적 지지자 편에서는 활동 내용을 줄이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조력자와 관련해서는 조력의 마음가짐을 경험해보는 것과 반분위기나 다른 친구들을 조력활동에 참여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활동을 넣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문제해결자에서는 또래 중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공감촉진자 관련해서는 드라마를 활용하여 대본 작성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실제 역할극 대본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전문가 감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시범운영 2차에 실시하였다.

〈표 18〉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전문가 감수 의견

영역	회기	내용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감수자 1	스트레스 관리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팀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
정서적 지지자	감수자 1	감정빙고 게임 좋다. 활동 내용을 줄이고 사례를 가지고 실습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감수자 2	활동 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이버 상담 방법, 다양한 감정 다루기, 상담에 필요한 대화 방법 훈련 등으로 분류하는 것 좋을 거 같다.
조력자	감수자 1	조력의 마음 가짐을 경험해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
	감수자 2	구체적인 문제유형별 조력활동 계획은 좋은 아이디어다. 반 분위기나 다른 친구들을 조력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문제 해결자	감수자 2	또래 중재는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는 훈련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중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다양하게 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도 좋을 거 같다.
	감수자 3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또래상담자 학생들이 실제 또래간 슈퍼비전에서 다루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 예를 들어 사례지도 받고 싶은 내용 중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보편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 공감 촉진자	감수자 1	드라마를 변형시켜보는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좋을 거 같다.
	감수자 2	시간을 50분에서 90분으로 늘려서 여유롭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감수자 3	심리극 시나리오 제시는 좋은 것 같다. 다른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심리극 시나리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4) 프로그램 현장 활용성 및 적합성 평가

가) 조사대상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은 또래상담지도자 집단 1개, 또래상담자 집단 1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래상담지도자 심층면접은 1, 2차 시범운영에 참여한 후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진행할 계획이 있는 또래상담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에 응한 또래상담지도자들은 모두 최소 3년에서 최대 12년의 또래상담 지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10인으로 구성되었다. 또래상담지도자는 남자 3명 여자 7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분포는 평균 35세이다. 또래상담자 심층면접은 또래상담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학교현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또래상담을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또래상담지도자들에게 의뢰를 받고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 10명으로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직후에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개발 연구팀의 논의를 바탕으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전반과 회기별 평가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각 집단별로 일정을 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집단별로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두 집단의 참여자들에게 모두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면접 내용이 녹취되었고, 이를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각 집단의 심층면접 내용을 3인의 연구진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진술을 요약하고 합의하며 내용을 재범주화 하였다.

〈표 19〉 심층면접 참여자의 구성

유형	구분	성별	나이	소속
또래상담 지도자	지도자1	여	40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2	여	42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3	여	52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4	여	49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5	남	45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6	남	45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7	남	30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8	여	35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9	여	30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10	여	31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자	또래1	여	17세	고등학교
	또래2	여	17세	고등학교
	또래3	여	17세	고등학교
	또래4	여	17세	고등학교
	또래5	남	17세	고등학교
	또래6	남	17세	고등학교
	또래7	남	17세	고등학교
	또래8	남	17세	고등학교
	또래9	남	17세	고등학교
	또래10	남	17세	고등학교

나) 심층면접 내용

또래상담지도자와 또래상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질문 내용은 표 20과 같다. 질문은 크게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내용 활용성, 운영 적절성, 학교폭력 예방 효과성으로 구성되었다.

〈표 20〉 심층면접 질문 내용

구성	질문내용
내용 활용성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정서적 지지자’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조력자’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문제해결자’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학교공감배려문화 촉진자’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촉진자’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운영 적절성	본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어떤가요?(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은 어떤가요?(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본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어떤가요?(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학교폭력 예방 효과성	현재 하고 있는 또래상담활동이 학교폭력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본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나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 활동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 심층면접 결과 요약

(1) 또래상담지도자 심층면접 결과 요약

(가) 내용 활용성

①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자기 관리 체크리스트
 - 자기 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흥미 유발(지도자7)
 -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데 효과적(지도자1)
- 행동강령
 - 또래상담자로서 지켜할 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중요함(지도자6)
 - 지도교사의 확인이 필요함(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자기 관리 및 시간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 필요(지도자3)
- 자기관리 및 시간관리 설문지 작성 후 피드백 필요
 - 설문 후 점수가 낮을 경우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설명 및 개선 방안 필요(지도자1)
 - 자기관리 및 시간관리 체크리스트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자8)
- 행동강령
 - 행동강령을 만들기에 앞서 기존의 규칙 및 자신의 상담 경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지도자2)

② 정서적 지지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교육 내용의 순서가 적절
 - 빙고게임 후 감정 수준, 감정 반영의 단계가 이해하기 쉬움(지도자2)

- 감정 수준을 통해 기본과정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음(지도자4)
- 감정 표현에 대한 방법이 추가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음(지도자10)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감정수준 알아보기
 - 하나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지도자1)
- 청소년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한 상담 방법 안내
 - 메일상담 대신 채팅(카톡)상담의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음(지도자1)
- 다양한 감정반영에 대한 실제 사례를 추가
 - 실제 사례에서 개방형 질문 찾기 등의 적용된 상담기법을 찾아보는 활동 추가(지도자1)
 - I-message 활용 방법(지도자8)

③ 조력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나비효과 동영상에 적절함(지도자2)
- 교실 속 다양한 모습을 역할극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준비단계의 효과가 있음(지도자7)
- ‘힘센이’, ‘약한이’ 라는 용어가 적절(지도자2)
- 조력이라는 단어가 어려움(지도자5)
- 조력이 필요한 친구 찾기와 조력활동 목록 만드는 활동이 좋음(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교육, 활동 부분의 내용이 많음
 - 내용을 학생수준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지도자8)
- 내용 명확화
 - 조력이 어려울 경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과 비밀유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지도자2)

④ 문제해결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갈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이해가 용이함(지도자5)
- 문제 해결자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움(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단어 수정 및 보완
 -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갈등관리, 갈등해결 등의 단어로 대체(지도자2)
 - 문제해결자 보다는 또래해결자, 고민해결자, 또래타협자, 또래협상가, 실마리 제공자 등의 완화된 단어로 표현(지도자10)
- 슈퍼비전
 - 기본교육이 끝나고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을 해도 좋음(지도자3)
 -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지도자6)

⑤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역할극에 대해 명확한 구조화가 좋았음
 - 대본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통해 심리극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지도자5)
 - 학교 교사가 처음 활용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음(지도자4)
- 빈의자 기법
 - 빈의자 기법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 같음(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UCC 제작 활동 추가
 - 역할극을 하기 이전 단계로 UCC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음(지도자6)
- 역할극 공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음(지도자8)

⑥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지역기관 연계
 -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음(지도자1)
 - 지역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지도자6)
- 학생들의 교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음(지도자4)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지도그리기
 - 지도그리기에서 학교폭력 우범지역을 나타내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음(지도자10)
- 또래상담자 활동
 - 기존의 아웃리치활동, 봉사활동 내용과 차별성이 필요(지도자8)

(나) 운영 적절성

① 교육대상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기본 교육 이수 후 상담활동 경험 필요
 -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게 적용 가능함(지도자8)
 - 기본 교육을 이후하고 상담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임(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교육대상을 넓히기 위해 내용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지도자9)

② 교육시간

▷ 프로그램효과 평가

- 12회기가 적절함(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2-3시간짜리의 모듈식 구성도 좋을 것 같음(지도자3)
-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록으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지도자9)

③ 교육방법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영역별로 교육-활동 순으로 교육하면 효과적일 것 같음(지도자3)
- 회기 구성 순서는 적절함(지도자1)
- PPT 자료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좋음(지도자3)
- 제공된 내용의 일부만으로 몇 회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동영상 및 감정카드와 같은 교육자료 제작이 필요(지도자3)
- 웹교재, 워크시트, 교재 모두 필요(지도자5)
- 전반적으로 동영상이 부족한 것 같음(지도자2)
- 아이들용 워크북이 있었으면 함(지도자1)

(다) 학교폭력 예방 효과

▷ 프로그램 효과 평가

-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지도자1, 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실제 또래상담자들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사례를 가지고 논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지도자3)
- 품성계발 알콩달콩처럼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제목 밑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목이 추가되었으면 함(지도자2)

(2) 또래상담자 심층면접 결과 요약

(가) 내용 활용성

①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자기자신에 대한 성찰가능
 - 자신의 평소행동에 대한 성찰(또래9)
 -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는 점(또래7)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자기관리능력 증진 필요
 - 교육 12회기 중 중반과 마지막에도 ‘자기관리 설문지’ 평가(또래2)
 - 자기관리목표를 정해서 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또래1)
- 행동강령 선정 전 상담경험 토론 필요
 - 우리학교 또래상담자만의 경험과 의견으로 행동강령 선정(또래8)
 - 강령을 만들기 이전에 자신의 지난 상담경험을 토론(또래9)

② 정서적 지지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감정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감정이해 유익
 - 다양한 감정표현들에 대해 알 수 있음(또래1, 또래2, 또래 4, 또래7)
 - 다양한 감정단어 표현할 기회 제공(또래3)
 - 감정에 대해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음(또래10)
 -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또래6)
- 감정수준 세분화 표현 및 이해 유익
 - 감정을 세분화하여 말하는 것이 좋음(또래4)
 - 감정수준을 세분화하면서 표현하는 점 좋음(또래3)
 - 상담을 의뢰한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또래9)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감정스피드퀴즈가 감정단어 설명 및 추가 필요
 - 다양한 감정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 필요(또래9)
 -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 포함 제안(또래1)
 - 감정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많으므로 긍정적 감정단어들도 추가 되었으면 함(또래9)
- 실제 상황에 적용한 공감연습 필요
 - 실질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친구한테 공감할 수 있는 기반 부족(또래10)
 - 실제의 상황에 맞춘 사례들이 필요함(또래4)
 - 감정반영 사례가 추가적으로 필요(또래9)
 - 어기역차, 원무지계 등의 다양한 실제 상담 활용 사례를 추가(또래10)

③ 조력자

▷ 프로그램 효과 평가

- 조력행동 예시 유용
 - 조력의 예시를 설명해서 좋음(또래 6)
 - 실제 또래상담 사례를 많이 들어서 조력행동을 제시한 것이 좋음(또래7)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조력자’에 대한 부담감
 - 또래상담자가 다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또래1)
 - 조력자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움(또래1, 또래5)
 -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친구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음(또래1)
 - 또래상담자로서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가볍게 친구로 다가가는 것이 좋음(또래9)

- 조력행동 실천 응용하기에 설명 미흡
 - 조력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 양이 너무 많아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움(또래2)
 - 열린 질문 같은 것을 활용하기 어려움(또래2)

④ 문제해결자

▷ 프로그램 효과 평가

- 슈퍼비전의 유용성
 - 슈퍼비전이 유익함 (또래3, 또래6, 또래7)
 - 슈퍼비전을 2-3회기로 연장 (또래2)
 - 사례기록보다는 슈퍼비전에 더 시간적 비중을 두어야 함 (또래1)
- 의사소통 필요성 효과적 교육
 - ‘내 마음이 보이니’에서 소통 필요성이 효과적으로 느껴짐(또래2)
- 일반적 사례가 유익
 - 실제 또래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와 닿음(또래2)
- 갈등중재방법 유익
 - 갈등중재방법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또래3)
- 문제해결 실패를 다룬 것이 유익
 - 중재를 실패했을 경우 대처법이 포함되어 도움이 됨(또래6)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실제적 갈등사례 추가
 - 실제 또래사이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더 많이 추가 (또래1)
- 문제해결자 역할 혼란
 - 문제해결자라는 용어는 상대방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므로 표현이 부적합(또래9)
 - 조력자와 문제해결자의 역할 중복으로 혼란(또래9)
 - 문제해결자라고 했을 때 또래상담자가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잃을 수 있음(또래4)
 - 중재라는 말보다는 조정이 맞음(또래1)

- 슈퍼비전 어휘 어려움
 - ‘슈퍼비전’ 용어의 생소함(또래2, 또래4, 또래7, 또래8)

⑤ 학교공감배려문화 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타인이해에 도움
 - 심리극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또래4)
- 감정표출 기회 제공
 - 이중자어나 빈의자 기법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활동 좋음(또래7)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심리극 교육에 전문성 및 추가적 교육시간 필요
 -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이중자어나 빈의자 기법에서 침묵이나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 발생 우려(또래1)
 - 전문적인 심리극에 대한 교육 필요(또래1, 또래10)
 - 심리극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시간부족으로 무리가 될 수 있음

⑥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지역기관 학습 효과적
 - 평소 잘 몰랐던 지역기관 이해 도움(또래2)
 -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관을 아는데 도움(또래9)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지도그리기보다 탐색활동 선호
 - 지도를 직접 그리는 것을 학생들이 귀찮아 함(또래9)
 - 지역기관을 각자 탐사한 후 정보를 공유하는 것 선호(또래2)
 - 지역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활동 제안(또래1)
- 지역기관정보 공유 캠페인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기관정보 공유 캠페인 제안(또래4)

(나) 운영 적절성

① 교육대상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제공경험자 교육가능
 -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기본교육 받는다면 교육 가능(또래1)

② 교육시간

▷ 프로그램효과 평가

- 12시간이 적절함
 - 양이 많다고 시간을 줄이기에는 내용이 좋음 (또래1)
 - 정기적으로 배우면 상담에 도움 예상 (또래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시간에 비해 분량이 많음
 - 분량이 많아 고등학생에게는 학기 중 교육 참여가 무리 (또래1)
 - 12회기 안에 많은 양을 하기에 무리 있음(또래4)
 - 12회기를 한 학기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래2)
 - 시간상의 문제(또래9)
 - 방학 때도 일정이 빠듯해 다 배울수 있을지 의문 (또래1)
 - 내용에 따라 시간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또래1)

③ 교육방법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슈퍼비전 활동 유용
 - 슈퍼비전이 도움이 많이 됨/ 사례회의가 더 많아졌으면 함(또래1, 또래2, 또래3, 또래6, 또래7)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학생의 흥미 유발 필요
 - 전반적으로 지루해 더 재미있는 구성 필요(또래5)
 - 재미가 없음(또래10)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제시 필요
 -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또래5, 또래6)
 - 핵심적으로 제시 (또래 10)
 - 최대한 간결하게 (또래 9)
- 시각자료 추가
 - 동영상이 추가되어야 함 (또래3)

(다) 학교폭력예방 효과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예방효과 있음
 - 예방가능하다고 생각함 (또래3)
 - 소외된 친구들을 어울리도록 말을 걸어줄 수 있음 (또래8)
 - 친구간에 오해를 품 (또래4)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직접적 가해발생 예방의 어려움
 - 심각한 폭력에는 또래상담 적용이 어려움 (또래2)
 - 상담의 연장일 뿐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또래7)
 - 심한 폭력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위원회와 같은 프로그램 필요 (또래2)
 - 남자아이들은 생각하면 때리기 때문에 소용없음 (또래5)
 - 간접적으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는 있지만 학교폭력을 막는 것은 무리(또래9)

라) 심층면접 시사점

심층면접 결과, 본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이 또래상담지도자가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교육하기에 전반적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년 반 이상의 또래상담경력이 있는 또래상담자들의 면접 결과를 통해 교육대상의 교육 욕구와 수준에 본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상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래상담지도자와 또래상담

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또래상담자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다짐을 되새겨보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고, 앞으로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나의 과거-현재-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콜라주 활동과 자기관리 체크리스트가 흥미로우면서도 자기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자기관리 체크리스트의 경우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로 구분하여 회기를 구성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직접 표현해보고, 감정의 수준을 세분해보고 이를 반영하는 활동은 기본교육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공감적 이해를 교육하여 또래상담자가 실제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감정에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조력자로서의 또래상담자의 역할에서는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해보므로써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또래상담자가 이해하고, 교실 속에서의 실제 조력활동을 연습하는 것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으로 친구가 경험하는 어려움별로 또래상담자들이 할 수 있는 조력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또래상담자들의 구체적 조력행동 동기를 북돋웠다.

그리고 문제해결자로서의 또래상담자에서는 또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 갈등상황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갈등에 물리적인 싸움뿐 아니라 미묘한 갈등들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또래상담자로서 친구들 사이의 갈등해소를 도와주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었다. 문제해결자의 활동부분인 사례회의는 또래상담 심화교육에 있어서 또래상담자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었고, 사례회의 활동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공감배려문화를 촉진하고, 학교 및 지역에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아보는 활동은 또래상담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고, 또래상담 활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심리극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감정 및 행동을 경험하는 과정은 또래상담자 자신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리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또래상담자와 교사와의 친밀감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또래상담자가 하는 활동이 대면 상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리는 효과도 있었다. 또래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계자원이 있음을 또래상담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각 회기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방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해당 회기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또래상담지도자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 형태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 활동 전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을수록 또래상담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므로 또래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 제시가 요구되었으며 특히 실제 또래상담 지도 및 또래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지지, 또래조력, 문제해결 및 문화축진 활동에 있어 몇몇 구체적인 사례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일부 학교급별 또래상담자에게 적용하는 데에 부적합할 것이고,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활동의 명명이 또래상담자들에게 부담감을 유발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고 재미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조력자, 문제해결자, 슈퍼비전 등의 일부 역할 명칭을 수정하도록 제안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으로서의 또래상담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로 물리적인 폭력상황보다는 미묘한 갈등상황, 집단따돌림의 예방에 더욱 적합하다고 응답되었다. 특히 남자 또래상담자들의 경우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많이 일어나므로 또래상담의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화프로그램에서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가 요구되었고,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조성이 또래상담자의 역할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또래상담지도자 참여자 관점 평가,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또래상담지도자와 또래상담자의 심층면접 내용분석을 토대로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 활동 12회기를 모듈식으로 선정하여 또래상담지도자의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순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회기별 필수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시 각 회기의 시간과 횟수를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추가하고자 한다.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실제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대상인 또래상담자의 경험, 학교 및 센터 일정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 중 상담 및 개입기법, 활동 절차를 실제성 높은 또래상담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또래상담자들의 교육 내용 이해를 돕고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감정반영 기법 실습 사례와 다양한 대화 이끄는 법의 사례, 문제해결자의 또래갈등해결 돕기 실습사례 그리고 실제 슈퍼비전 사례를 추가하여 원론적이고 모호한 설명을 핵심적이고 구체적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셋째, 전반적으로 또래상담자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최적화 하고, 또래상담자 역할 용어를 실제 역할에 맞게 수정하여 . 시범운영 프로그램에서의 ‘조력자’는 ‘또래조력자’로, ‘문제해결자’는 ‘또래해결자’로 변경하여 기존의 명칭보다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슈퍼비전’은 청소년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사례회의’로 수정하였으며 ‘갈등중재자’는 갈등해결에 있어 갈등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또래상담자의 역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래 화해도우미’로 수정하였다.

넷째, 또래상담자들에게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교육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또래상담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를 명시하고자 한다. 특히, 남학생들은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폭력을 또래상담자가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발생에 있어 또래상담자들의

정서적지지, 조력, 고민해결, 공감배려문화 촉진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제작하였다.

〈표 21〉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수정사항

영역		수정사항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확립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 자료 포함 * 체크리스트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함. * 또래상담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관련 용어를 쉽게 기술함 * 행동강령을 ‘행동다짐’으로 수정하며, 내용 선정 전에 또래상담자들의 자신의 상담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보완함.
정서적 지지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에 대해서 알아본 후 감정반영의 방법에 대해 익히도록 순서를 바꿈 * 감정반영시 실제 사례를 실습이 필요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상담기법인지 찾아보도록 함
조력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쉽게 기술함. * 조력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 부분의 용어 수정 및 개연성을 보완함. * 조력의 실천 부분을 활동회기 내용과 연결시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활동 계획을 짜기 전에 조력을 필요로 하는 친구 유형 및 조력활동 목록을 생각해보도록 보완함. * 또래상담자가 직접 계획한 조력활동 계획을 역할극을 통해 시연해볼 수 있도록 보완함.
문제해결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자’라는 역할명을 ‘또래해결자’라는 용어로 수정 * 갈등해결 돕기 실습교육 부분에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갈등사례들을 추가 보완 * 갈등 다루는 것을 돕는 구체적 방법 보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비전의 용어를 ‘사례지도’로 변경함 * 사례기록지 작성 예시를 첨부함. *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지도의 예시를 추가함
학교 공감배려 문화 촉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극에 대한 지도 지침을 추가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C 제작 활동 부분을 보충자료로 추가함.
지역사회 공감배려 문화 촉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해지는 마당에서 학교폭력 우범지역을 표시하는 활동을 추가함. *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함. *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정보 공유 캠페인 활동 추가

〈표 22〉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세부 내용

영역	구분	회기 (시간)	시범운영 세부 내용	시범운영 토대로 수정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성장하는 또래 상담자	교육 회기	1회기 (45~50분)	1. 친해지는 마당 2. 또래상담자로서의 나-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3. 또래상담자 시간관리	1. 친해지는 마당 2. 내가 생각하는 나- 현재 나의 모습과 원하는 나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3. 나는 내가 관리한다.
	활동 회기	2회기 (45~50분)	1. 또래상담자 역할 한계 알기 2. 또래상담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 파악하기 3. 또래상담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 실천하고 평가하기	1. 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 알기 2. 또래상담자가 지켜야 할 행동 다짐 파악하기 3. 또래상담자가 지켜야 할 행동 다짐 실천하고 평가하기
정서적 지지자	교육 회기	3회기 (45~50분)	1. 친해지는 마당 2.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 알아보기 3. 감정 반영에 대해 알아보기 4. 정리하기	1. 친해지는 마당 2.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 알아보기 3. 감정 반영에 대해 알아보기 4. 정리하기
	활동 회기	4회기 (45~50분)	1. 대면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법 배우기 - 경청 및 공감하기/어기역차/잠하들셋/I-message/원무지계 2. 사이버 상담에서의 상담 방법 배우기 3. 다양한 감정에 대한 고민 들어주기 - 좌절감정/실망감정/분노감정/갈등감정	1. 대면상담에서의 다양한 기법 알아보기 2. 사이버상담에서의 상담방법 알아보기 3. 다양한 감정에 대한 고민 들어주기
조력자 (또래 조력자)	교육 회기	5회기 (45~50분)	1. 교실에서의 관심 대 무관심 인식 2. 조력에 대해 이해하기 3. 조력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 이해하기 4. 조력행동의 효과 이해하기	1. 교실에서의 관심 대 무관심 인식 2. 조력에 대해 이해하기 3. 조력행동의 효과 이해하기

	활동 회기	6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이 필요한 친구 찾기 2. 공일이·친한이 되기 3. 필요한 도움 파악하기 4. 조력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력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이 필요한 친구 찾기 · 공일이·친한이 되기 - 필요한 도움 알아보기 - 조력하기 2. 조력활동 연습해보기
문제 해결자 (또래 해결자)	교육 회기	7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2. 엮힌 마음, 갈등 이해하기 3. 갈등중재방법 배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의 이해 2. 갈등을 지닌 친구를 돕는 대화 3. 두 친구의 화해 돕기
	활동 회기	8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례 기록지 작성하기 2. 사례 선정하기 3. 또래상담자 간 슈퍼비전 4. 종결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례 기록지 작성하기 2. 사례 선정하기 3. 또래상담자 간 사례지도 4. 느낌 나누기
학교 공감 촉진자	교육 회기	9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몸으로 표현하기 2. 연기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와 동작 연기하기 3. 심리극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자아 기법 배우기 - 빈의자 기법 배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몸으로 표현하기 2. 연기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와 동작 연기하기 3. 심리극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자아 기법 배우기 - 빈의자 기법 배우기
	활동 회기	10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 극화 쓰기 (대본 쓰기) 2. 심리극 공연 단계 이해하기 3. 완성 대본 수정 및 실연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야기 극화 쓰기(대본 쓰기) 2. 심리극 공연 단계 이해하기 3. 완성 대본 수정 및 실연하기
지역사회 공감 촉진자	교육 회기	11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2.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3. 지역 내 상담기관 연계하기 4. 느낌 나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해지는 마당 2.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3. 지역 내 청소년관련 기관 연계하기 4. 느낌 나누기
	활동 회기	12회기 (45~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길거리 이동 상담하기 2. 자원봉사 활동 3. 튜터링 활동 4. 지역 연합회 활동 5. 지역 캠프 참여 6. 캠페인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연합회 활동 2. 지역 캠프 참여 3. 캠페인 활동 4. 길거리 이동 상담하기 5. 자원봉사 활동 6. 튜터링 활동

IV. 요약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1994년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보급되었으며, 2012년 4,600여개의 학교에서, 60,000여명 또래상담자와 6,200여명 또래상담 지도자가 양성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활동하였다. 또래상담은 아이들만의 사각 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즉, 또래상담자의 활동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한 친구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감해주고, 도움을 주며, 공감하고 배려하는 학급 및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급 구성원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학급응집력을 높이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이렇듯 학교폭력 예방에서의 또래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둔 또래상담자 역할을 촉진시키는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개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시의성에 맞추어, 본 연구는 20여년 가까이 현장에 밀착되어 수정 보완되면서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를 긍정적인 변화(이남희, 2005), 학교적응력 향상(최혜숙, 2006), 또래상담자의 자존감, 인간관계, 사회성 향상(최현주, 2003, 정인호, 2003)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또래상담 기초훈련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로서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또래상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먼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기획단계-구성단계-실행단계 및 평가 단계를 거쳤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또래상담자의 역할 정의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또래상담 전문지도자) 23명에게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발전적 운영 및 심화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헌 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나온 시사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원리와 운영원리를 도출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의 규정된 역할에 따라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학교 배려공감문화 촉진자, 지역사회 배려공감문화 촉진자, 성장하는 또래상담자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각의 영역은 다시 교육과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교육 회기는 각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 함양을 위한 회기이며, 활동 회기는 역할에 따른 또래상담자의 실제 활동 안내 및 지침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심화프로그램의 운영 원리는, 먼저, 이미 또래상담 기초프로그램을 수료한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를 주 대상으로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교육 회기 6회와 활동 회기 6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자 한명과 또래상담자 10-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참여자 관점 평가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시범운영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할 또래상담 지도자 69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관점 평가와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운영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1차 시범 운영 전에 전문가 검수를 받았으며, 1차 후 회기별 평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2차에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실시 후 현장적용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또래상담 지도자와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관찰 평가 결과, 효과성, 참여성, 충실성, 신뢰성 및 편의성 모든 영역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개발된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의 구성이 신뢰롭고, 효과적이며, 참여를 유도하며, 접근하기 쉽고, 교육 방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에서도 12회기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프로그램 회기 각각에 대해서도 만족하여 구성 내용의 적합성 및 타당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공감배려 문화 촉진자로 구분하여 전체 회기를 구성한 것과 교육과 활동 회기로 구분한 것이 현장 요구에 적합하고, 그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부분에서는 기초프로그램에서의 공감을 익힌 또래상담자들이 보다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실제 활동에서 또래들의 감정에 좀 더 정확하게 반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조력자 부분에서는 교실에서의 실제 조력활동에 대한 역할 연습 등을 통해 교실 안에서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동기와 빈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문제해결자로서의 또래상담자 부분에서는 갈등해소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또래상담자의 활용욕구가 높은 사례회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감배려촉진자 부분과 관련하여, 심리극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또래상담자들과 또래상담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 내 자원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가 보다 다양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또래상담 지도자와 또래상담자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안점도 보고되었다. 전체 구성과 관련하여, 내용이 각 회기별로 많고, 문제해결자 등의 용어가 다소 어려우며, UCC나 캠페인 등 문화조성 프로그램이 첨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회기별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로 구성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문헌연구와 델파이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모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94년 이후 20여 년 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2012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래상담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서의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나아가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공감배려하는 분위기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의 규정이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20여 년 간 또래상담을 운영해온 또래상담 지도자들의 현장 의견 등 이론적·실제적 근거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또래상담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델파이 연구, 또래상담자와 또래상담지도자 대상 심층면접, 참여자 관점 평가, 전문가 감수를 통해 기획과 시범운영, 프로그램 수정 단계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또래상담이 20여 년간 운영되어온 바, 또래상담전문지도자, 또래상담지도자, 또래상담자 등 다양한 또래상담 인적자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또래상담 관련자들의 의견반영의 필요성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가 일반 프로그램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전문지도자에게 교육되며, 교육받은 전문지도자에 의해 다시 또래상담지도자에게 교육되며, 또래상담

지도자에 의해 또래상담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심리극, 캠페인 등 활동 부분은 또래상담자 각자의 욕구와 노력보다는 또래상담 지도자의 욕구와 지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또래상담자의 교육과 활동 부분으로 구성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이 보다 현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자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 지도자와 또래상담전문지도자의 의견이 모두 중요하다. 이러한 또래상담 전달체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참여자 관점의 평가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또래상담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다소 충족되었음을 들 수 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단계별 기초훈련 프로그램(2000)과 심화프로그램(2003)이 개발되었으나 전달체계의 구성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여타의 청소년 자치활동에 비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또래상담 활동을 더욱 정교화 하는 지침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또래상담자로서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래상담자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 학교 및 지역사회의 공감배려문화 촉진자의 또래상담자 역할에 따른 또래상담자의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래상담활동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수정,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안의 모든 회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교육되는 자치활동 시간이 짧아 12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실정과 학생수준에 맞게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역할에 따라 모듈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내 공감배려 분위기 조성 역할에 관심이 있는 또래상담지도자의 경우,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회기만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학교급

별 및 경력별 다양한 운영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바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때 효과검증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학교 실정 상 또래상담 기초 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12회기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학교 실정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12회기 중 활동 회기 6회기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한 시간 외에 과외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활동 회기의 효과는 회기 내에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대본을 수정하는 것 외에 가외로 심리극 활동을 진행해보아야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 검증 시에는 전년도에 또래상담 기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부터 시작하거나 역할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1년여의 교육 활동을 통한 효과성 검증이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이 프로그램 상용화 전에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즉 추가 연구로 10월부터 35명의 고등학교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12시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공감, 학교폭력 방관자 유형 척도의 사전 사후 검사와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셋째,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및 매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의 실제적인 대상인 또래상담전문지도자, 또래상담지도자, 또래상담자인 바, 모든 대상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상을 위한 교재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또래상담자용 교재와 워크시트, 또래상담지도자용 지침서 및 웹교재, 모바일 웹, 또래상담전문지도자용 지도자 교육 운영지침서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미(2004). 또래상담 훈련이 농촌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주영, 임성택(2010).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평가연구, 3(1), 1-14.
- 곽형식(1998).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원인과 예방대책. 경상대학교 학생생활연구, 4(1), 1-16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또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사업 결과 요약본. 교육과학기술부.
-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1994).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2, 3-38.
- 금희라(2001). 가상공간에서의 또래상담 유용성 연구: 사이버또래상담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하영희(1998).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규칙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 69-93.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2). 아동기 공격성과 청소년 폭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학교 영역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3, 1-28.
- 김상곤, 정연정(2007). 고등학교 교과연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9, 61-98.
- 김순혜(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교육, 21(3), 5-17.
- 김영아(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신을진,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학령, 김정화, 정익중(201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 검증-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261-288.
- 김혜경(2006). 사이버 또래상담 활동이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임(2008).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21세기 사회복지연구, 5(1), 101-115.
- 남영옥, 한상철(2007).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들의 영향력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5(1), 77-89.
- 노성덕(2006). 고등학교 또래상담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부열(2007). 또래상담자 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성원, 한중철(1996).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233-246.
- 문용린 외(200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민영(2003). 또래상담활동 경험이 또래 상담자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라(2008). 또래상담자 훈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종(2003). 가상공간에서의 또래상담을 통한 요선도 학생 인성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2007). 또래상담자훈련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백향하(2004). 고등학생의 또래상담 활동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12). 학생 자치 법정 매뉴얼. 법무부.
- 변상해, 김세봉(2011).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1(2), 466-476.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2010). (학교폭력예방을 위한)시범학교 운영 매뉴얼. 과주: 교육과학사.
- 성규탁(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강화하는 문화적 전통. 한국 노년학, 10, 163-181.
- 소원미(2003). 또래상담 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재(2012).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영향요인 탐구: 근거이론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미진, 고흥월, 이동훈, 김영화(2011).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 양가영(2008).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 경험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종국, 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연문희, 강진령(2002). 학교상담-21세기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오선영(2012).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유하(2009). 또래상담자 유형에 따라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명희(200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학생폭력을 중심으로. 명지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관용, 김순화(1983). 대학에서의 동료카운슬링. 학생연구, 9(1), 18-29.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기숙, 박소영(2000).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련성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8(9), 1-14.
- 이나미(2011). 학급임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또래수용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희(2005). 또래상담자 활동이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이정화, 이애선, 박원모(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9(1), 185-205.
- 이미리(200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행동 경험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168-188.
- 이수경(2004). 학교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이정남(2008). 남녀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변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12.
- 이종성(2001). 텔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주형(2011). 교내갈등해결을 위한 또래조정(Peer Mediation) 이론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0(2), 5-28.
- 이형득, 김정희(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41-63.
- 이호준(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해우(2002).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분석을 통한 학교경영체제모형탐색. 학교교육행정학회, 20(1), 233-256.
- 장연정(200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혜, 김종훈(2008). 또래상담자의 멘토활동이 초등학교 배척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7(1), 185-203.
- 정영실(2005). 또래상담자 훈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호(2003). 또래상담자 훈련이 중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임, 주은선(2006). 또래상담 활동이 따돌림 경험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주는 영향 :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2, 1-16.
- 정현주, 최수미, 김하나(2012).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 연구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조연순, 김아영, 허미화, 김인전(2001). 교사-학생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인성교육의 현황 및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학회, 39(3), 233-258.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채연희(2003). 또래상담 운영이 또래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급 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연희, 이현림(2003). 또래상담 운영이 또래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1(1), 116-125.
-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2012).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프로그램개발: 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 최성규, 황석윤, 이정연(2011). 정인지체아동 진단평가 및 교육적 지원을 위한 퍼지 프로그램 개발적용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101-118.
- 최현주(2003).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 이현림(2005).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 및 소속 학급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415-433.
- 최혜숙(2006).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8). 학교폭력의 실태·원인 및 대처방안. 사회과학총론, 18, 30-3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초·중등학교의 갈등해결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 2012 학교폭력 대응 솔리언또래상담사업 결과보고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희(2002). 영재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소은(200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비교연구: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학도(2006).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탐색을 위한 조사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8(3). 364-373.
- 홍봉선, 남미애(2005).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홍상욱, 엄경순, 배옥현(2003). 현대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8(1), 139-155.
-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s.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pp. 99-125.
- Cohen, 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 310-357.
-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Ramey, S. L., Shure, M. B.,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10), 1013-1022.
- Frey, K. S., Hirschstein, & Guzzo, B. A, (2000). Second Step: Preventing aggression promoting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 102-122.
-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New York : Pergamon.
- Haynie, D. L., & Osgood, D. W.(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1109-1130.
- Hawkins, J. D., Herrenkohl, T.,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 Harachi, T. W. 1998. "A review of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106-14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Lombardi, J. S., & Carek, R. (1978).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367.
- May, R. J., & Rademacher, B. G. (1980).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367.
- Olstad, R., Sexton, H., & Sogaard, A.J.(2001), The Finnmark study, A prospective population study of the social support buffer hypothesis, specific stressors and mental distr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12), pp. 582-589.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 Perry, D. C., & Bussey, K. 최순영 편(1984).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학지사.
- Pollard, J., Catalano, R. F., Hawkins, J. D., & Arthur, M. (1997). *Development of a school-based survey measuring risk and protective of substance aduse in adolescent populations*. Manuscript under review.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3. Social competence in child*, 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wearer, S. M., & Espelage, D. L. (2004). Introduction: a social-ecological framework of bullying among youth. In D. L. Espelage and S. M. Swerer(Eds.),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1-12, Mahwah, NJ: Erlbaum.
- Taub, J. (2001). Evaluation of the Second Step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t a rural elementary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31(2), 260-277.

- Varenhorst, B. B. (1984). *Peer counseling : Past promis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3), 328-349.
- Vriend, T. J. (1969). High-performing inner-city adolescents assist low-performing peers in counseling group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7*(9), 897-904.
- Williams, K., Rivera, L., Neighbours, R., & Reznik, V. (2007). "Youth violence prevention research, training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8*, 195-211.

부 록

1. 델파이 조사 도구 및 참여자 관점 평가 도구
2. 심층면접 내용

부록 1. 델파이 조사 도구 및 참여자 관점 평가 도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델파이 1회 설문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실	실장 양미진
	학교폭력예방팀	팀장 서미
	학교폭력예방팀	팀원 주지선
	학교폭력예방팀	팀원 김혜영
	학업중단대응팀	팀원 성벼리

연락처 02) 2250-3090

<추후 설문 일정>
- 1차 설문: 2013년 4월 19일~ 26일
- 2차 설문: 2013년 5월 06일~ 10일
- 3차 설문: 2013년 5월 20일~ 24일
- 답변은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성별	
소속기관		부서명	
수당지급관련	주소: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계좌번호(은행명):		

※ 수당은 5월 16일 전후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현재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솔리언 또래상담의 발전방향(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4.

5.

·
·
·

슬리언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델파이 2회 질문

※ 다음은 슬리언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중 또래상담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정도와 실현가능정도를 체크해 주시고, 우선순위는 10위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필요	← 보통 →	매우 불필요	번호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가능 ← →	불가능	우선 순위
			1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3	학습부진 청소년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4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개입 방법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5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7	또래 상담 교육					
			8	학교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9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0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1	또래상담자의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12	라포형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기개입에 유용한 해결중심상담기법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번호	포대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가 능	← →	불 가 능	우 선 순 위
				매우 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번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필요	← 보통	→ 보통	매우불 필요	번호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가능	← →	불 가능	우선 순위
				25	또래상담자의 갈등중재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6	또래상담자의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비밀보장, 상담자의 책임과 한계 등)				
				27	또래상담자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의미, 가/피해자 심리,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관련 법률에 대한 접근 등)				
				28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9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0	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1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래상담의 의미, 타인을 돕는 가치 등)				
				32	청소년 상담 관련 연계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	레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다.				

솔리언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델파이 2회 질문

※ 다음은 솔리언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중 또래상담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정도와 실현가능정도를 체크해 주시고, 우선순위는 10위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필요	← 보통 →	매우 필요	← →	불 가 능	우선 순위
번호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1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관련 연구모임이 필요하다			
3					
		학교폭력 관련 UCC 제작이 필요하다			
4					
		학교폭력 관련 게임이 필요하다.(골든벨 게임 등)			
5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가 필요하다.			
6					
		또래 상담 교육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모의상담 시연회가 필요하다.			
7					
		또래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			
8					
		지역 내 또래상담 연계기관 탐방이 필요하다.			
9					
		온라인으로 또래상담 커뮤니티 운영(카페,블로그)이 필요하다.			
10					
		또래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필요하다.			
11					
		사과테이 행사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12					
		학급이나 화장실 등에 명언 등을 게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솔리언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델파이 2회 질문

※ 다음은 솔리언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중 학교나 지역센터에서의 또래상담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와 실현가능성을 체크해 주시고, 우선순위는 10위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정도		③ 우선순위	
매우 필요	← 보통 →	← 보통 →	← 보통 →	가능	불가능
매우 필요	← 보통 →	← 보통 →	← 보통 →	가능	불가능
매우 필요	← 보통 →	← 보통 →	← 보통 →	가능	불가능
매우 필요	← 보통 →	← 보통 →	← 보통 →	가능	불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의 포래상담 심화프로그램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한 『3차 델파이 설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 또래상담 전문가 23인 ● 조사기간: 3차 델파이 조사 2013년 6월 5일(수)~ 2013년 6월 12일(수) ● 조사방법: 이메일(hykim0400@kyci.or.kr) 및 CYS-NET 알람방 메일 ● 연락처: 02-2250-3091/3094 	<p>책임연구자 양미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실 실장) 서 미(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팀 팀장)</p> <p>공동연구자 주지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팀 선임상담원) 김혜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팀 상담원) 진환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팀 상담원) 성버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대응팀 상담원)</p>
--	---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연구는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2차 질문지에서 보내주셨던 의견을 바탕으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34문항, 활동 26문항**으로 설문지가 재구성되었으며, 2차 설문에서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최빈치, 본인의 응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설문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필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다시 체크해 주시고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술해 주십시오.**

매우 바쁘시겠지만 3차 설문지(~6월 12(수)까지)의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번호	구분	내용	2차 설문지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성		③ 의견
			평균	최빈치	매우 필요	보통	매우 불필요	평균	최빈치	가능	
1	문제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02	6	5	5	5	5	4	4	
2	해결자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또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56	6	7	6	6	6	4	4	✓

[문 1] 다음은 토래상담 심화프로그램 중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①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고, ③의견란에는 해당 교육내용에 대해 재 진술되어야 할 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 (예: 다른 항목과의 통합, 삭제 필요, 다른 구분으로의 이동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토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내용	2차 설문지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성		③ 의견
			평균	최 빈 치	매 우 필요	보 통	매 우 불 필요	평균	최 빈 치	본인 응답	가 능	
1	성장 하는 토래 상담자	토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교육이 필요하다.	5.00	5					3.22	4		
2		토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탐색교육이 필요하다.	4.91	5					3.35	3		
3		토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레스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5.87	6					3.57	4		
4		토래상담자 자신의 장점 및 잠재력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96	6					3.74	4		
5		토래상담자 소진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6		토래상담자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토래상담의 의미, 타인을 돕는 가치 등).	6.00	6					3.52	4		
7		토래상담자의 윤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5	7					3.87	4		
8		토래상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9	3					3.65	4		
9		상담 기록 작성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3	6					3.48	4		
10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라포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0	7					3.83	4		
11		경청 및 공감 훈련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6.74	7					3.78	4		
12		의사소통 기술 중 질문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30	7					3.78	4		
13		의사소통 기술 중 요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87	6					3.61	4		
14		다양한 감정인식 및 표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15		학폭폭력 피해친구의 심리(위축, 고립감 등)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포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2차 설문지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번호	구분		내용	평균		최빈치	평균	최빈치	가능 ↔ 불가능
16	조력자	포래내담자의 사회성향상기술(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한 포래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6.52	7	매우 필요	보통	매우 불필요		
17		'도움'의 의미 및 행동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18	문제 해결자	학교폭력 방관자(방관 및 무관심 등)의 심리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19		포래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좌절, 우울, 절망, 분노 등)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20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74	6					
21		청소년의 성문제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5	6					
22		인터넷 중독 개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87	5					
23		해결중심상담기법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04	7					
24		문제해결방법(스트레스 대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6					
25		대인관계 갈등관리 및 증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91	6					
26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표현하기, 타인과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등)	5.78	6					
27		전문상담자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39	6					
28		포래상담자들이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슈퍼비전)가 필요하다.	6.39	7					

번호	포대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2차 설문지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구분	내용	평균	최 빈 치	본인 응답	매 우 필 요	보 통	매 우 불 필요	평균	최 빈 치	본인 응답	가 능	불 가 능				
29	학교 공감 배려 문화 추진자	배려와 존중 등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	6.30	7	본인 응답				3.83	4	본인 응답						
30		포대상담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83	6					3.52	4							
31		함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17	6					3.57	4							
32	지역사회 공감 배려 문화 추진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33		청소년 권리 옹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34		청소년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문 2] 다음은 포레상담 심화프로그램 중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① 필요한 정도, ②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고, ③의견내용에 대해 재 진술되어야 할 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포레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내용	2차 설문지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성		③ 의견
			평균	최 빈 치	매 우 필 요	보 통	매 우 불 필요	평균	최 빈 치	본인 응답	
1	성장하는 포레 상담자	포레상담 일지 관리 및 정리가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2		포레상담 관련 홍보활동이 필요하다(포레상담반 교내 홍보, 포레상담 활동 홍보 등).		신규등록				신규등록			
3	정서적 지지자	감정카드(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포레내담자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4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6.17	7				3.61	4		
5	조력자	외로운 친구의 학교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이동 수업 시 함께 가기, 점심식사 같이 먹기, 준비물 함께 사기 등)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6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 내담자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7		온라인 상의 포레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ex. 사이버포레상담자)	5.48	7				3.04	4		
8		포레 친구들 간의 갈등중재 활동이 필요하다.	5.83	6				3.13	3		
9		전문상담이 필요한 친구를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6.48	7				3.57	4		
10	문제 해결자	포레상담과 관련하여 모의상담 시연회가 필요하다.	5.87	6				3.3	4		
11		신임 포레상담자에 대한 사례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5.91	6				3.3	3		
12		포레상담자들 간 사례회의가 필요하다.	6.30	7				3.57	4		
13		지역 내 청소년 지원연계 기관(예: 정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기관, 쉼터 등) 에코맵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번호	구분	포대상담 심화프로그램 교육 내용	2차 설문지			① 심화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도			2차 설문지			② 실현가능정도		③ 의견
			평균	최 빈 치	본인 응답	매 우 필 요	보 통	매 우 불 필 요	평균	최 빈 치	본인 응답	가 능	불 가 능	
14		역할극 및 심리극 공연이 필요하다.	5.57	7					3.13	4				
15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가 필요하다.	4.96	6					3.09	3				
16		사과데이 행사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30	5					3.35	4				
17	학교 공감 배려 문화 추진자	포대상담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이 필요하다.	6.17	6					3.65	4				
18		고운말 쓰기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6.13	6					3.65	4				
19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6.00	7					3.52	4				
20		포대상담자 활동지 발간이 필요하다.	5.48	6					3.22	4				
21		포대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이 필요하다.	5.39	6					3.43	4				
22		학급 내 창의적인 포대상담 활동을 기획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5.87	6					3.35	4				
23		지역 내 포대상담 연계기관 탐방이 필요하다.	5.52	5					3.22	4				
24	지역 사회 공감 배려 문화 추진자	지역 내 상담 관련 기관의 교육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25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포럼 및 토론회 참여가 필요하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26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학교폭력근절캠페인, 금연캠페인, 양성평등, 청소년권리옹호 등)	신규등록						신규등록					

【참여자 인적사항】

♣ 각 문항의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_____ ② 여 _____

2) 연령

① 30~35세 _____ ② 36~40세 _____ ③ 41~45세 _____

④ 46~50세 _____ ⑤ 51~55세 _____ ⑥ 56~60세 _____

3)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_____ ② 대학교 졸업 _____

③ 대학원 석사 수료 _____ ④ 대학원 석사 졸업 _____

⑤ 대학원 박사 수료 _____ ⑥ 대학원 박사 졸업 _____

⑦ 기타 _____

4) 최종 학력 전공

① 사회복지학 _____ ② 심리학 _____

③ 교육학 _____ ④ 아동학 _____

⑤ 가족학 _____ ⑥ 청소년학 _____

⑦ 기타 _____

5) 또래상담 관련 경력

① 1년 미만 _____ ② 1년 이상-3년 미만 _____

③ 3년 이상-5년 미만 _____ ④ 5년 이상-7년 미만 _____

⑤ 7년 이상-10년 미만 _____ ⑥ 10년 이상 _____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관점 평가 도구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프로그램의 내용이 처음 홍보된 내용과 일치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강사 또는 직원들은 참가자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4	교육 장소에는 멀티미디어 등 교육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다.					
5	강사의 교수법이 훌륭하다.					
6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신하다.					
7	참가자가 또래상담지도자로서 배우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예를 들면, 상담 전략)을 배울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적절하다.					
9	또래상담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10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는 편안하고 쾌적하다.					
11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12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3	프로그램은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14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간대가 또래상담지도자가 참여하기에 적절한 시간대이다.					
15	강사는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준다.					
16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 지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접할 수 있다.					
17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적절하다.					
18	프로그램은 또래상담활동과 관련하여 또래상담지도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에 못 옮기는 것들을 일깨워준다.					
19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0	강사는 참가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21	참가자는 또래상담 지도에 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22	강사는 참가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준다.					
23	프로그램은 또래상담 지도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사례를 제시해준다.					
24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믿을 만한 곳이다.					

부 록 2

심층면접 내용

부록 2. 심층면접 내용

1. 또래상담지도자 심층면접

①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 프로그램 효과 평가

• 자기 관리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지도자7)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자기관리, 시간관리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지도자1)

• 행동강령

"또래상담자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지도자6)

"또래상담자가 만든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하고, 활동 중간중간에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 (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동영상 자료

"자기관리와 시간관리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3)

• 자기관리 및 시간관리 설문지 작성 후 피드백 필요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서 점수가 낮게 나온 아이들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지침도 첨부되어야 할 것 같다."(지도자1)

"자기관리 설문지는 흐름상 적용하기 좋은데 시간관리는 좀 생뚱맞은 것 같다. 둘 다 넣되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8)

- 행동강령

"새로운 행동강령을 만들기에 전에 기본교육 때 받는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이나 자기가 했던 다짐, 그리고 상담경험 같은 것들을 되짚어 보고 이것을 새로운 규칙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지도자2)

② 정서적 지지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교육 내용의 순서가 적절

"실제로 학생들과 이 부분을 할 때, 빙고게임을 다양한 감정어휘를 알고, 감정 수준과 반영으로 이어지니까 이해하기 훨씬 쉬웠던 것 같다."(지도자2)

"감정에 수준이 있음을 알고, 각 단계에 맞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기본교육에서 다룬 감정에 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지도자4)

"알아차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다루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지도자10)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감정수준 알아보기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과 하나의 감정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것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어떤 한가지로 정하거나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지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도자1)

- 청소년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한 상담 방법 안내

"요즘 아이들은 메일보다는 카톡이 익숙하니깐,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래상담자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다."(지도자1)

- 다양한 감정반영에 대한 실제 사례를 추가

"실제 사례를 하나 주고, 사례 안에서 또래상담자가 개방형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다른 상담기법이 어디에 적용

되었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넣어도 좋을 것 같다.”(지도자1)
 ”기본에서 간단하게 제시된 I-message기법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화방법을 알려줘도 좋을 것 같다.”(지도자8)

③ 조력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동영상

“동영상을 보면 조력이 무엇인지 아이들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비효과를 표현한 동영상과 나비효과로 또래상담활동을 설명하는 부분도 좋았다.”(지도자2)

● 역할극 활용

“도입에 교실 속 다양한 친구 유형을 역할극으로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뒷부분의 심리극 부분과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있지만 도움행동을 하지 못했던 또래상담자라면 연습효과도 있을 것 같다.”(지도자7)

● 용어 사용

“교실 속 친구의 유형을 힘센이, 약한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학생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지도자2)

● 조력자 단어의 어려움

“조력이라는 단어가 어렵다. 요즘 학생들과 심리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문항에 나오는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조력이라는 단어도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다.”(지도자5)

● 조력활동 준비단계 활동

“조력이 필요한 친구를 찾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교육, 활동 부분의 내용이 많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교육 부분에서는 조력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8)

- 내용 명확화

“조력이 어려운 경우 교사의 도움을 청하라는 부분에서 상담의 비밀 규칙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도자2)

④ 문제해결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갈등의 이해

“보통 아이들이 갈등하면 싸우는 것을 한정시켜서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갈등을 설명해서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 (지도자5)

- 문제해결에 대한 부담

“또래상담 교육을 할 때 또래상담자가 완벽한 해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해결자 이렇게 나오니깐 부담이 될 것 같다.”(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단어 수정 및 보완

“중재라고 하면 심각한 갈등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갈등관리는 갈등해결 등의 단어로 풀어서 좀 덜 어렵게 전달되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2)

“해결자라는 단어가 중압감을 느끼게 한다. 실마리제공자, 중재자 이런 단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지도자10)

- 슈퍼비전

“기본교육을 하고 나서 슈퍼비전 내용이 들어가면 사례일지를 적어야 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지도자3)

“자기들이 경험한 갈등, 실제 또래상담한 사례를 활용해서 슈퍼비전을 연습해보도록 해도 좋을 것 같다.”(지도자6)

⑤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역할극에 대해 명확한 구조화가 좋았음

"활동에서 직접 대본을 써보는 것이 무척 좋은 것 같다." (지도자5)

"역할극은 공연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물론, 교사, 공연을 보는 학생들 모두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지금의 내용으로 제시한다면 상담이나 극 지도에 경험이 없는 교사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지도자4)

- 빈의자 기법

"심리극을 간단하게 체험하거나, 혹은 다른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빈의자 기법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지도자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UCC 제작 활동 추가

"심리극을 준비 하기 전 단계로 UCC를 찍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6)

- 역할극 공연 과정 제시

"지금의 내용에서 역할극을 처음에 준비하고 공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해주면 지도교사가 활용하기 더 좋을 것 같다."(지도자8)

⑥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지역기관 연계

"한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을 폭넓게 포함시키면 내용이 더 풍부해질 것 같다." (지도자1)

"또래상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알고 있는 것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지도자6)

- 대외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또래상담자가 직접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기도 생기는 것 같다.”(지도자4)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지도그리기

“청소년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해당지역에서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하는 방법 등의 활동으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다.”(지도자10)

- 또래상담자 활동

“심화단계에서 다루는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느낌이 든다. 기존의 봉사활동이나 지역 아웃리치활동과 차별되는 또래상담활동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8)

⑦ 교육대상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기본 교육 이수 후 상담활동 경험 필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1학년 혹은 중학교 때 기본교육을 받고 활동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지도자8)

“또래상담자의 학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활동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심화교육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내용의 난이도 조절

“교육대상자의 폭을 넓히려면 용어라던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쉽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지도자9)

⑧ 교육시간

▷ 프로그램효과 평가

- 12회기 구성 적절

“한 회기 당 1시간으로 해서 12회기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다.”(지도자1)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모듈식 구성

“지도자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제시해도 좋을 것 같다.”(지도자3)

- 필수내용과 추가자료 구성

“꼭 지도해야하는 필수내용을 주고, 다른 내용은 지도자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 형태로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9)

⑨ 교육방법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교육-활동 순서 적절

“교육 뒤에 활동이 바로 나와서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교육을 다 하고 한참 뒤에 활동을 하려면 다시 또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지도자3)

- 전체 내용 전개 적절

“또래상담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래의 마음을 읽어주고, 행동으로 도와주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결방법을 찾고,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흐름이 무척 마음에 든다.”(지도자1)

- 교육 진행시 파워포인트 자료 유용

“시범운영 때 활용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매뉴얼은 교사가 보고 교육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3)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동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의 필요

“인터넷이 안되는 공간에서 교육을 할 때는 링크로 되어 있는 영상은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꼭 인물이 나오는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 내용에 맞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감정카드와 같은 교구재도 보급되면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지도자3)

• 교재 및 교구재

“웹교재가 시각적으로는 활용하기 좋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이 들어있는 교재도 필요하다. 예전에 사용하던 노란색 교재같은 것이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웹교재, 워크시트와 함께 교재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교육이 훨씬 잘 전달되는 것 같다.”(지도자5)

⑩ 기타

• 상담이론

“또래상담자 보수교육을 하다 보니 또래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담이론이나 상담기법을 알려주면 보다 전문적으로 느끼고 좋아하더라.”(지도자3)

• 또래상담자용 워크북

“매뉴얼만으로는 지도할 때 어렵다. 기본교육에서처럼 또래상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워크북을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좋겠다.”(지도자2)

• 또래상담자 전국단위 행사

“공감배려문화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애플데이 같은 행사를 전체 또래상담자가 다 같이 하는 그런 날을 만든다면 의미있을 것 같다.”(지도자1)

• 학교폭력 예방을 제목에 표기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부제목을 다는 형태라든지 해서 제목에 명확하게 표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2)

- 전반적인 난이도

“심화에도 단계가 있을텐데, 지금의 내용에는 1단계부터 4단계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도자10)

- 내용 분량

“슈퍼비전, 심리극과 같은 회기는 이 주제만으로도 몇 회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 것 같다.”(지도자9)

- 회기 및 각 활동 간 연결고리 보완 필요

“기본교육에서도 느낀 부분이기도 하지만 각 회기 간 혹은 활동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지도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좋을 것 같다.”(지도자5)

- 분량 및 내용 편집

“각각의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내용을 추가로 더 넣기 보다는 현재의 내용을 또래상담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뺄 부분은 과감하게 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지도자8)

2. 또래상담자 심층면접

①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자기자신에 대한 성찰가능

“이게 좋았던 게요. 사람이 성찰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지 판단하는 자세 같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또래9)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자기관리능력 증진 필요

“설문지를 12차기, 6회기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작성해서 아까 목표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중간이랑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문지를 해서 그 목표가 잘 자신이 잘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또래1)

- 행동강령 선정 전 상담경험 토론 필요

“강령을 만들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강령을 제시하였을 때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담을 하였을 때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강령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또래8)

② 정서적 지지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감정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감정이해 유익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잖아요. 표현 방법을.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고…”(또래1)

- 감정수준 세분화 표현 및 이해 유익

“저는 감정 수준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기를 그 친구가 정확하게 어떤 기분일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또래9)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감정스피드퀴즈가 감정단어 설명 및 추가 필요

“그 표현이 무언지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을 거 같아서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또래9)

- 실제예시상황에 적용한 공감연습 필요

“저번에는 원무지계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무지계로 상담을 하였으면 그것을 상담사례를 몇 가지 뽑아서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예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어요. 응용이 어려웠어요.”(또래10)

③ 조력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조력행동 예시 유용

“조력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점은 좋았구요.” (또래6)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조력자’에 대한 부담감

“기대를 하고 보진 않았는데 조력자라는 부분이 뭔가 또래상담자가 다해야 할 것 같고 약간 부담감이 들었어요.” (또래1)

- 조력행동 실천 응용하기에 설명 미흡

“여기에 보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는?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구요. 아까 용어에 대해서도 열린 질문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과연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었어요.”(또래2)

④ 문제해결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슈퍼비전의 유용성

“슈퍼비전이 좋은 거 같아요. 2,3회기로 나누면 좋겠어요.” (또래2)

- 의사소통 필요성 효과적 교육

“내 마음이 보이니? 에서 학생들이 직접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쌍방향적 소통이 필요하단 걸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거 같구요.” (또래2)

- 일반적 사례가 유익

“수정이 이야기에서 수정이의 사례에서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사례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갈등중재방법 유익

“저는 갈등중재? 이런 것들을 듣고 학교에서는 갈등이 많이 일

어나긴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실제로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또래3)

- 문제해결 실패를 다룬 것이 유익
“중재의 실패의 경우를 둔 건 좋은 거 같아요.” (또래6)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실제적 갈등사례 추가
“또래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실제 또래상담 사례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또래1)
- 문제해결자 역할 혼란
“저의 의견은 문제해결자라는 자체에 대한 불만인데 우리가 배울 때에는 직접적인 것이 아닌 상담자라고 배우고는 우리가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도록 이끌어 내주도록 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해결사라고 해버리니까 저희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조력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괜찮은 표현인거 같아요.” (또래9)
- 슈퍼비전 어휘 어려움
“그런데 저는 아직 슈퍼비전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또래7)

⑤ 학교공감배려문화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타인이해에 도움
“여기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역지사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래4)
- 감정표출 기회 제공
“심리극과 약간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좋은 활동들이인 거 같아요.” (또래7)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심리극 교육에 전문성 및 추가적 교육시간 필요

“방금 이 친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좋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빈의자 기법은 상황이 맞춰지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인데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그 상황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거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한번만 어긋나게 되면 한 시간 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지나가는 경우와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웃고 떠들게 되는 상황이 우려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또래1)

⑥ 지역사회공감배려문화 촉진자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지역기관 학습 효과적

“또 좋은 점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기관이나 도움을 받아야하는 기관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알 수 있으니까.” (또래9)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지도그리기보다 탐색활동 선호

“앞부분에 대동여지도처럼 직접 그림을 그려서 지도처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아보기도 귀찮아서 같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래9)

- 지역기관정보 공유 캠페인

“그리고 직접 다른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도 알려주고 이것도 일종의 캠페인이니까 그런 활동도 좋은 거 같아요.”(또래4)

⑦ 교육대상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제공경험자 교육가능

“전반적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또래1)

⑧ 교육시간

▷ 프로그램효과 평가

- 12시간이 적절함

“정기적으로 배워서 더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래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시간에 비해 분량이 많음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고등학생들한테는 불가능할 거 같아요. 그냥 방학 때 할 때에는 안 나올 거 같고, 저도 안 나올 거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또래1)

⑨ 교육방법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슈퍼비전 활동 유용

“슈퍼비전이 좋은 거 같아요. 2,3회기로 나누면 좋겠어요.” (또래2)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학생의 흥미 유발 필요

“또래상담을 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은 대개 상담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오는데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하는 건 아닌지.. 아이들이 싫어할 거 같아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래5)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제시 필요

“전반적으로 포인트만 짚어주고 어떤 식으로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줄이고요.” (또래5)

- 시각자료 추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또래3)

⑩ 학교폭력예방 효과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예방효과 있음

“학교폭력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소외된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는 것이 막상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신경을 쓰는 것이 큰 일을 방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또래3)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직접적 가해발생 예방의 어려움

“사실 이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라고 했듯이 간접적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을 막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또래9)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Peer Counsel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s school violence becomes more severe and brutal, our society is making a variety of attempts to eliminate it including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Act on Prevention and Plan for School Violence in 2004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Eliminating School Violence in 2012. Peer counseling programs have been included as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Eliminating School Violence and about 60,000 peer counselors have been trained in about 4,600 schools in 2012 and the number has increased in 2013. It is reported that peer counselors prevent school violence by early detection of blind spots, helping (possible) victims' adaptation by providing listening and sympathy and facilitating the culture of sympath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Choi, 2006; KYCI, 2013). In this way, it is shown that the importance of peer counseling i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s significant and the need for an advanced peer counseling program is increasing.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devise a program which trains peer counselors in specific skill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 advanced peer counseling program has been developed which has passed through the planning stage, composing stage, operating stage and assessment stage. First, in the planning stage, we researched the literature in order to define and comprehend the role of peer counselors in school violence. We also performed a Delphi survey on progressive management and the contents of the advanced program targeting twenty-three experts three tim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Delphi survey, we extracted the principles of the program composed as follows.

First, the program focuses on clarifying the role of peer counselors i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reinforces the necessary activities related to their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the role of peer counselor was divided largely into two parts: the one who helps the victims and the one who supports a sympathetic and considerate environment. The role of helping victims subdivided into emotional supporter, helper and problem-solver and the role of supporting a sympathetic environment was divided again into the sympathetic and consideration facilitator in schools and also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program was composed of an education and an activity part according to each area of a peer counselor's role. The education area includes content related to the quality of role performance.

Third, the program focused on defining roles and providing support for peer counselors.

The program developed along the lines of these principles and was composed of twelve sessions for middle and high school peer counselors who had finished the existing basic peer counseling program. The program is comprised of six education and six activity sessions which usually occur once a week with ten to fifteen peer counselors.

In the administration and assessment stages, the completed program was test-operated by participant evalu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program's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The test operation was carried out twice with sixty-nine peer counseling instructors a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effectiveness level of the program through the participants' evaluation of each session. Before the first test operation, the first version of the program was modified and overseen by expert supervision. After the first test operation was completed, the program was modified further several times and again submitted to a second test operation. After the first and second test operations, in-depth interviews of ten peer counseling instructors and ten peer counselors were processed to examine the programs effectiveness more thoroughly.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rticipant assessments, the evaluation score of all areas including effectiveness, participation, fidelity, convenience was over four. Therefore we determined that the participa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program. On the other hand, in an evaluation of twelve for each session participants scored over four points, which means there is a positive regard for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ogram's contents. Similarly,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the peer counselors' needs were provided for by composing programs with four peer counselor roles: emotional supporter, helper, problem-solver, and facilitator of a sympathetic environment and by dividing each session into an education and an activity part.

In view of th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is program would help peer counselors to play effective and positive roles i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More significantly, this research found theoretical grounds and models for the roles of peer counselors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opinions of experts provided by a Delphi survey. It is, therefore, expected that the program would contribute to a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research of peer counseling effectiveness. This would fill a need in the peer counseling field which requires a continuous training program following the basic program and provide for more organized activities for peer counselors which, in turn, would contribute towards a solution for the existence violence in Korean schools.

Given the positive results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re now explored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